

2023년 제2회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실무교육

2023. 7. 6.(목) ~ 7.(금)
더케이호텔 서울 / 남한산성



2023년 제2회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실무교육

2023. 7. 6.(목) ~ 7.(금)
더케이호텔 서울 / 남한산성



목차

I.	2023년 제2회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실무교육 개요	03
II.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06
III.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설명·해석을 위한 속성의 개념과 추출 방법	16
IV.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OUV 속성 도출과 보호 활용	36
V.	남한산성 세계유산 가치와 등재기술문 작성	54
VI.	실습: 세계유산 해석·설명하기	72
부록	1. 국내 15개 세계유산 등재기술문	82
	2. 참고문헌	112
	3. 교육 일정표	113

2023년 제2회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실무교육 개요

‘2023년 제2회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실무교육’은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세계유산과 그 가치, 정책, 현안 등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센터)는 2022년도에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에 관한 첫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국내 세계유산 관리 및 보존에 있어 유산 담당자들의 해석 역량을 강화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세계유산 관계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우리 센터는 역량강화를 통해 유산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모든 주체가 유산이 직면한 현안을 스스로 해석하고, 이를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여 유산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세계유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더욱 심화하여, 세계유산의 국내 법적 적용방안, 속성 중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해석·설명,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OUV 속성 도출 방식 및 활용방안 등을 통해 세계유산 가치와 속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남한산성의 등재가치와 그 외의 다른 가치들을 함께 논의하며 교육 참여자 스스로 세계유산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함께할 것이다. 본 교육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은 물론 교육을 통해 얻은 세계유산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교육 참여자 모두는 세계유산 이해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현재의 유산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교육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 2장에서는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개요는 물론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내·외 법적 방안 등을 설명한다.
- 3장에서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차이를 이해하고 세계유산의 OUV를 해석·설명하기 위한 속성의 개념과 추출 방법을 살펴본다.
- 4장에서는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을 사례로 연속유산으로서 OUV 속성을 도출한 방법과 등재 이후 속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 5장에서는 남한산성이 가진 세계유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남한산성의 다른 가치들을 함께 확인한다.
- 6장에서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사례로 등재기술문을 스스로 해석하여 속성을 추출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설명해본다.



II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예나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장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이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것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세계유산제도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 파괴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1960년 이집트 누비아 유적이 아스완 댐 설치로 수몰위기에 처하자 유네스코의 지원 요청에 따라 60개국이 힘을 합치며 세계유산제도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다. 1972년 11월 1일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88년에 협약에 가입하였다. 가장 최근에 투발루가 가입하며 현재는 195개국이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며, 그 중 167개국의 1,157건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목록에 우리나라의 유산은 석굴암·불국사, 창덕궁, 한국의 갯벌 등 15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유산목록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세계유산 중 방치, 개발 등으로 심각한 훼손을 겪거나 보호계획이 미비한 유산들은 위험에 처한 목록에 오르기도 하고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기도 한다.

세계유산제도는 국제적으로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72)’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국내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228호)』 등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세계유산 보호를 위해 협약 가입국, 세계유산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ICOMOS, IUCN, ICCROM) 그리고 유적 관리자,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제도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위원국은 아르헨티나, 벨기에, 불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 말리, 멕시코, 나이지리아, 오만, 카타르,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잠비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 총 세 차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수임하였으며, 2023년 올해 위원국에 진출할 예정이다(선출 시, 2023-2027 기간 동안 위원국 활동).

세계유산위원회는 ① 등재기준, ② 완전성과 진정성, ③ 보호관리계획을 평가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다. 문화유산은 등재기준 (I)~(VI), 자연유산은 (VII)~(X)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한다.

- (I)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호주 오페라 하우스)
-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경주역사유적지구)
-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종묘)
- (V)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리비아 가다마스 옛도시)
- (VI)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 되어야 한다.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제주 용암동굴 및 화산섬)
-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케냐 국립공원)
- (X)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하여야 하며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다.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세계유산은 완전성의 조건 역시 충족해야 하는데,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과 그 속성의 전체성 및 온전함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완전성을 심사할 때는 다음의 정도에 대해 유산을 평가해야 한다(운영지침 제88항).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 여부**
- **유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과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규모인지 여부**
- **개발 및 방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

특히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완전성을 포함하여 진정성의 요건 역시 충족시켜야 한다. 문화유산의 유형과 그것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통해 그 문화적 가치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게 표현되었다면 그 유산은 진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운영지침 제82항).

- **형태와 디자인**
- **재료와 물질**
- **용도와 기능**
- **전통, 기법, 관리체계**
- **위치와 주변환경**
- **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 **정신(spirit)과 감정**
- **다른 내부와 외부 요소**

마지막으로 보호관리계획 역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운영지침 상에는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통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하거나 점차 향상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시에는 적절한 경계 설정, 적정규모의 완충구역 설정, 연속유산 통합관리체계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등재 이후에도 대응 모니터링이나 정기점검 등 세계유산 모니터링 과정의 틀 안에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세계유산 심사절차

1) 잠정목록(Tentative List)

잠정목록제도는 당사국이 세계유산목록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대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사무국)에 등록하는 것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 국내/외 모두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국내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록하는 절차인데, 국제심사는 없으나 세계유산 예비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세계유산 예비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최소 1년 전에 사무국에 잠정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사무국에 제출한 대한민국의 잠정목록 유산은 15건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등록년도	잠정목록 유산(15건)	비고
1994	강진 도요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2002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2010	염전, 대곡천암각화군, 중부내륙산성군	
2011	우포늪, 외암마을, 낙안읍성	
2012	한양도성	
2017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2019	가야고분군	
2022	양주 회암사지 유적	
2023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제출('23년 5월)

표 -1 한국의 잠정목록 유산

2) 사전자문(Upstream)

사전자문제도는 예비심사 및 신청서 준비 전에 진행하는 자문·협의·분석을 말하며, 등재신청 과정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신청하며 평가과정 중 중대한 문제를 겪게 되는 등재 신청 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서류검토를 기반으로 하며 필요 시에 현장심사를 진행하는데 비용은 해당 유산 관리자가 부담하며, 결과는 심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외교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를 단계를 거치는데, 2019년 ‘충남 내포권역의 천주교 유적군’에서 처음 신청을 하여 2020년 선정, 2021년에 현지실사가 진행되었다.

3)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세계유산목록의 균형성과 신뢰성 회복, 세계유산 등재의 질 개선 및 당사국과 자문기구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신청 과정 중 예비평가단계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2027년까지는 과도기를 거쳐 2028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예비평가는 현장실사 없이 데스크 리뷰로 실시하게 되는데, 해당 유적이 잠재적 OUV가 있는지 여부와 당사국의 등재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권고 형식의 구체적인 지침과 자문을 제공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평가결과에 따라 등재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구분	예비평가	사전자문
의무여부	의무사항	선택사항
현장실사	문서 검토만 진행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가능
이행범위	잠정목록에 기 등재된 유산에 한하여 이행	잠정목록 수정 등 등재절차 전반에 관한 자문 가능
이행비용	평가절차 비용 전반에 포함	일반적으로 요청 당사국이 부담
이행일정	운영지침 168항에 명시된 일정을 따름	별도로 규정된 일정이 없음
이행순서	사전자문이 예비평가 절차에 선행됨	

표 2-2 예비평가와 사전자문 구분

4) 세계유산 등재절차

세계유산 등재절차는 국내적으로는 잠정목록 심의 선정, 우선등재목록 심의 선정, 예비평가 대상 선정, 등재신청후보 심의 선정, 등재신청대상 심의 선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국외절차로는 잠정목록 신청 등재, 예비평가 신청서 제출, 예비평가 심사, 예비평가 결과 통보, 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등재신청서 제출, 등재신청서 심사,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단계로 이루어진다. 등재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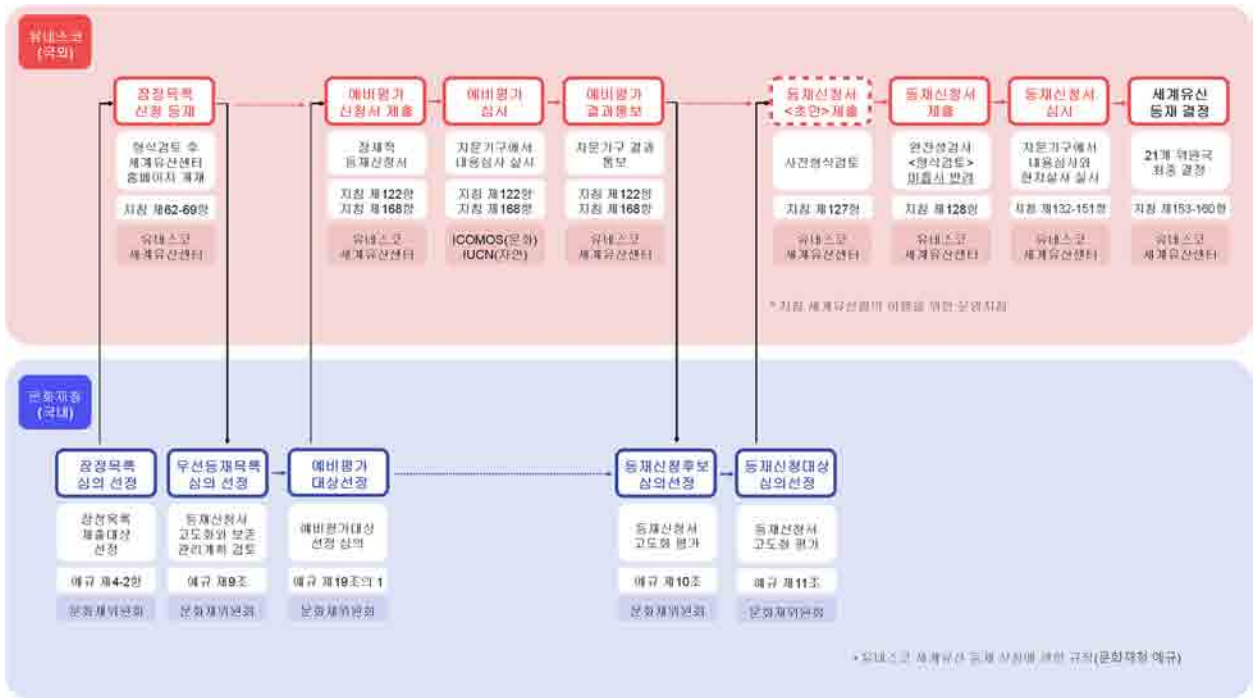


그림 2-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도

순서	일정	내용	기한
1	-1년 7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7.31.
2	-1년 9월	(문화재청)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9.30.
3	00년 1월	(문화재청)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최종본 제출	2.1.
4	00년 3월	(자문기구) 문화재청에 완성도 검사 통지 (세계유산센터) 자문기구 심사 의뢰	
5	00년 8~10월	(자문기구) 현지실사(전문가 1~2인 위촉, 파견)	
6	00년 10월	(자문기구) 문화재청에 질의서한 통지 (문화재청) 1차 추가자료(답변) 제출	
7	00년 11월	제1차 패널 회의, 당사국 면담	
8	+1년 1월	(자문기구) 문화재청에 중간 평가보고서 통지 (문화재청) 2차 추가자료(답변) 제출	2.28.
9	+1년 3월	제2차 패널 비공개 회의	
10	+1년 5월	(자문기구) 문화재청에 자문기구 평가보고서 통지 (세계유산센터) 권고안 공개	

표 2-3. 세계유산 심사절차

3. 국내 세계유산 관련 정책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은 보조금 형식의 예산으로 연간 약 300억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지원제도는 일반적인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지원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예산은 보통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 정비계획수립, 발굴, 안전진단, 토지매입 등에 소요된다. 매년 4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예산신청을 하며, 각 사업부서 및 세계유산정책과에서 4~8월까지 검토한 후 9월에 차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를 하게 된다.

2)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 지원

세계유산 보존뿐만 아니라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예산 역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세계유산 17억, 세계기록유산 17억, 세계유산 활용 20억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 사업은 관광 사업 또는 일반적인 문화재 활용 사업과는 구별하여,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으로 홍보 및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매년 7~8월에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으며, 8~9월에 검토 및 대상 선정을 한 후 9월에 확정 통지를 하게 된다.

3) 세계유산영향평가

모든 세계유산은 완충구역 이외에 더 넓은 환경으로 둘러싸여있다. 따라서 세계유산 주변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 지형적 요소, 자연 및 건축 환경, 기반 시설, 토지사용계획, 공간의 조직 및 시각적 영향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행위가 세계유산의 OUV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 예측,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은 저감하면서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유네스코의 요청에 의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조선왕릉 등 일부 유산에 대해 유산영향평가가 실시된 바 있으며, 현재 「세계유산법」 개정을 통해 보다 면밀한 기준 마련을 위해 법제화 중에 있다.



III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설명·해석을 위한 속성의 개념과 추출 방법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설명·해석을 위한 속성의 개념과 추출 방법

이수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장

1.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의 개념

세계유산 설명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건은 2008년 이코모스에서 제정한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이다. 이 헌장은 ① 해석과 설명의 목표가 무엇인지, ② 특정 문화와 유산의 맥락에 맞는 기술적 수단이자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원칙이 무엇인지, ③ 해석과 설명을 해나가는 데에 윤리적, 그리고 전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헌장에서는 ‘해석’과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해석】 문화유산 유적의 이해를 돕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발간물이나 전자 형태의 발간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연, 현장이나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현장 아닌 장소에의 설치물, 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그리고 진행 중인 연구, 훈련, 해석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다.

【Interpretation】 refers to the full range of potential activities intended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 site. These can include print and electronic publications, public lectures, on-site and directly related off-site installations, educational programmes, community activities, and ongoing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of the interpretation process itself.

【설명】 문화유산 유적에 해석적인 정보, 물리적 접근, 해석적인 인프라 등을 통하여 해석적 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게 계획된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판넬, 박물관 형태의 디스플레이, 정형화된 도보 관람, 강연, 가이드 관람,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Presentation】 more specifically denotes the carefully planned communication of interpretive content through the arrangement of interpretive information, physical access, and interpretive infrastructure at a cultural heritage site. It can be conveyed through a variety of technical means, including, yet not requiring, such elements as informational panels, museum-type displays, formalized walking tours, lectures and guided tours, and multimedia applications and websites.

위의 정의를 다시 정리해보면, ‘해석’은 문화유산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모든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발굴을 포함한 정보의 수집, 유물의 조사와 연구, 정보를 토대로 유산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중요성을 밝히는 것 등 유산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초가 되는 모든 행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설명’은 유산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유산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이 파악되면 그러한 내용을 다양한 유형의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유산의 특성에 맞게 공유하고 전달하는 행위이다.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에서는 기존의 정의를 현 시점에 맞게 정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념(안)을 도출하였다.

유산 해석은 소통, 참여, 경험을 통한 의미 형성 과정이다. 이것은 사람과 유산 간 연결을 촉진하고, 이해를 증진시킨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은 윤리적이고 참여적인 접근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공동체가 지닌 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산 가치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한다.

※ 이 정의(안)은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될 예정임

또한 올해 ‘설명’에 대한 개념정의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명의 개념정의에는 ‘message’와 ‘medium’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념정의 안을 도출하고 있다.

2.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 : 속성의 개념과 가치와의 연관성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는 매우 추상적이고, 가치 평가가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추상적·주관적 한계를 지닌 가치의 개념을 보완하여 가치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이 ‘속성(attribute)’이다.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유산별로 특정한 ‘구성요소’를 통해 표현되고, 전달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구성요건’을 갖추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할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 있어서 속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표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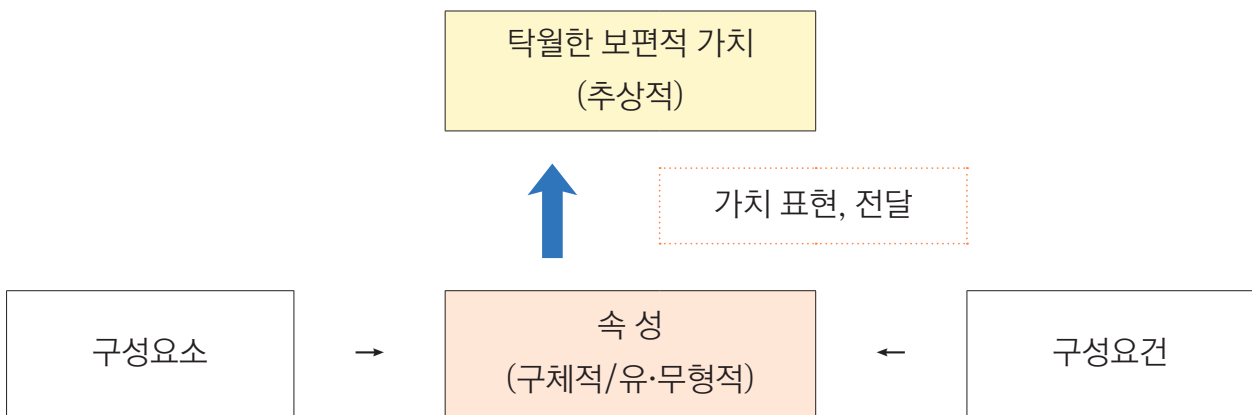


표 3-1.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 간의 관계

이러한 속성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서술은 다음의 3건의 문건에 명시되어 있다.

- ① 세계유산 등재준비 매뉴얼(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2011, 이하 등재준비 매뉴얼)
- ② 2021년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2021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이하 운영지침)
- ③ 세계유산 맥락에서의 영향평가를 위한 지침 및 툴킷(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 이하 영향평가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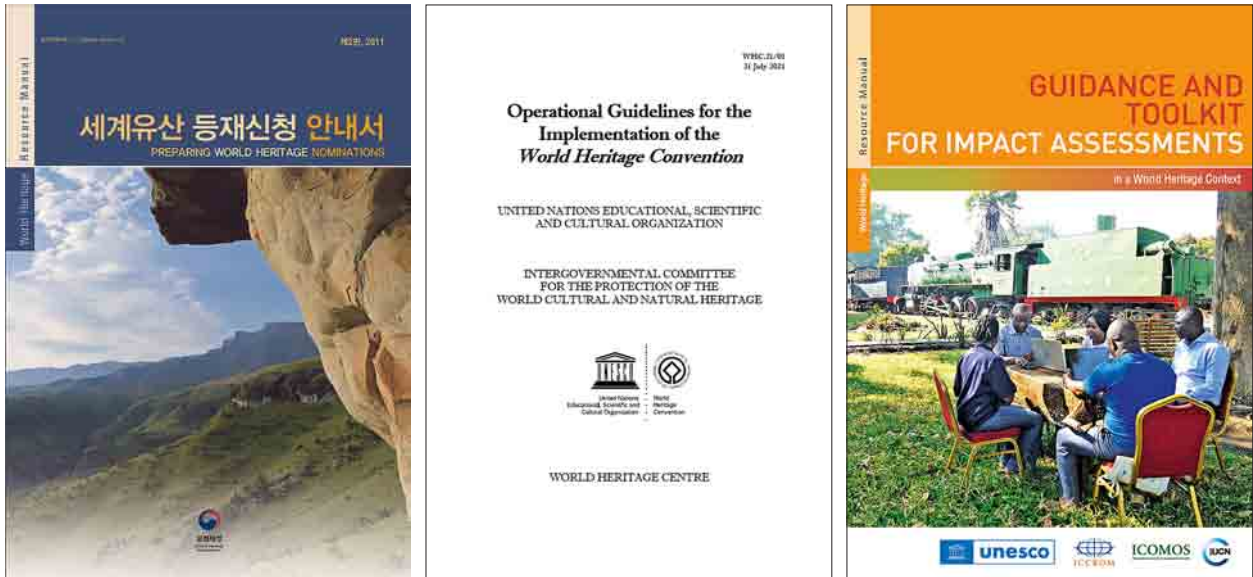


그림 3-1. 속성 정의와 개념 관련 지침서

먼저, ① 등재준비 매뉴얼에서는 속성은 OUV와 연관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유산의 여러 측면(유무형)으로, OUV기술문과 등재 기준의 근거에 대한 설명에서 비롯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속성은 세계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유산의 보호, 보존, 관리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고 정의한다. ② 운영지침에서는 제82항에서 8가지 유형의 속성들을 나열하고 있다(부록 참조). 그리고 세계유산의 가치가 속성을 통해 진실하고 신뢰있게 표현되고 전달된다면 유산의 진정성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영향평가지침에서도 속성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완전성과 진정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서술하고 있다. 속성은 세계유산 그 자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요소이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전성과 진정성의 조건 또한 충족해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속성파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건에서 속성은 유형적 속성과 무형적 속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들 세 문건에서 서술하는 속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III.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설명·해석을 위한 속성의 개념과 추출 방법

출처	원문	번역
<p>① 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2011)</p>	<p>Attributes are aspects of a property which are associated with or expres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ttributes can be tangible or intangible. Attributes must be identified as they are vital to understanding authenticity and integrity, and are the focus of protec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p>	<p>속성은 OUV와 연결되어 있거나 OUV를 표현하는 유산의 측면이다. 속성은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일 수 있다. 속성은 진정성과 완전성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보호, 보존, 관리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p>
<p>② 2021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2021)</p>	<p>Depending on the type of cultural heritage, and its cultural context, properties may be understood to meet the conditions of authenticity if their cultural values (as recognized in the nomination criteria proposed) are truthfully and credibly expressed through a variety of attributes including</p>	<p>문화유산의 유형과 그것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그 문화적 가치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게 표현되었다면 그 유산은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p>
<p>③ 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2022)</p>	<p>Attributes are the elements of a heritage place that convey its values and makes them understandable. (tangible aspects) physical qualities, relating to the material fabric and other tangible features intangible aspects such as processes, social arrangements or cultural practices / associations and relationships which are reflected in physical elements of the property.</p>	<p>속성은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산의 요소들이다. (유형적 측면) 물리적 부분과 기타 모든 유형적 특질과 연관된 물리적 측면 (무형적 측면) 과정,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적 행위, 물리적 요소에 반영된 연관성이나 관계</p>

표 3-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문건에 서술된 '속성' 관련 내용

앞서 서술한 세 지침과 최근의 연구 및 속성 관련 문헌 종합 및 분석하여 가치, 진정성과 완전성, 그리고 속성 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가치에 부합하는 10개의 등재기준(criteria)은 그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다. 위의 표에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①)는 인지적, 정서적 판단에 따라 인식되고 평가되는 것이므로, 가치는 유형적·무형적 실체를 통해 표현되고, 인식된다. 그러므로 가치를 표현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 즉 구성요소(⑤)를 통해 구현되고, 실제화된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⑤)가 가치를 표현하고 실제화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가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구성요건(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추상적 개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구성요건을 갖추어 구성요건을 통해 표현되고 실제화된다. 구성요소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 유산의 유형, 즉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받치는 기둥은 진정성(②)과 완전성(③)이다. 진정성(②)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유산에 내재된 가치를 **신뢰할 만한 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다양한 유·무형적 측면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완전성(③)은 유산에 내재된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온전성과 전체성**을 말한다. 즉, 진정성을 앞서 서술한 구성요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통해 구성요소가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완전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의 온전성과 구성요소의 완전성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속성(④)은 유산에 내재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실체화하는 요소들이 특정 요건을 갖추어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으로 유산의 가치 구성요소와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고찰을 통해 각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어정의】

- ①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고 보호할 만한 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의미와 중요성
 - *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치를 구성하는 실체를 통해 주관적인 개념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속성’개념을 도입
- ② 진정성: OUV를 표현하는 능력
- ③ 완전성: OUV를 유지하는 능력
 - *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추상적인 성격을 보완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
- ④ 속성: 가치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전달하고,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유·무형적인 요소
- ⑤ 구성요소: 가치를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표현하며 유지하는 실체
- ⑥ 구성요건: 다양한 유형의 구성요소가 가치를 형성하고 표현하며 유지한다고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와 갖추어야 할 요건
 - * 유산이 지닌 가치는 추상적이므로,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와 요건을 통해 가치를 객관화하고,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상의 자료를 통해 속성의 개념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요소들, 즉 속성을 통하여 가치를 구현(형성)하고, 전달하고 유지한다. 이러한 속성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형성하고, 전달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요소**와 가치를 형성하고, 전달하고,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 가치를 형성하고 전달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 보완적으로 가치를 형성하고, 전달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 유형적 측면에 해당하는 속성 유형에는 유산의 가치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형태, 물질, 장소, 주변환경 등이 있으며, 무형적 측면에 해당하는 속성 유형은 정신, 사상, 철학, 감각적 요소, 배치의도, 기능 등이 있다.
- 다양한 유·무형적 요소들이 가치를 형성하고, 전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신뢰할 만한 정보원**을 통해 유·무형적 요소들이 가치를 실체화 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둘째로, 가치를 실체화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온전하게 남아있어야** 하며, 셋째로 가치를 실체화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3. 속성의 유형

- 1) **유형적 요소**: 유산의 가치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눈에 보이는 형태, 물질, 장소, 주변환경 등 유형적 실체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유형적 요소는 배치의도, 기능, 사상적 측면, 예술적 의도 등과 같이 무형적 요소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거나 감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다.
- 2) **무형적 요소**: 정신적·사상적·철학적·감각적·인지적 측면, 배치의도, 사용방식과 기능 등 보이지 않지만 유산의 가치를 구성하거나 유형적 요소와 연관된 무형적 측면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무형적 요소는 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유형적 측면을 통해 유산의 가치를 구성하게 되지만 물리적으로 구현되지 않더라도 가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3) **유산의 OUV를 담아내는 ‘과정(process)’**: 유산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 전통적인 관리방식 등 유산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후대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나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무형적 요소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상호의존성 등의 역학적 흐름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형태와 디자인 (form & design)	경관적 특징 (specific landscape features)
물질과 재료 (material & substance)	서식지역 (area of habitat)
사용과 기능 (use & function)	대표적 종 (flagship species)
전통과 기술 (tradition & technique)	환경적 특질에 연관된 측면 (aspects relating to environmental quality)
위치와 주변환경 (location & setting)	크기/서식지의 자연성(천연성) (scale/naturalness of habitats)
정신과 느낌 (spirit & feeling)	규모/야생개체수의 생존가능성 (size/viability of wildlife populations)
언어와 기타형태의 무형유산 (language &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4. 속성의 역할

속성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속성은 유산의 가치를 유·무형적인 형태로 형성하고, 표현하며, 전달하며, 유지한다.
- 속성을 통해 유산의(또는 유산 가치의) 보존상태를 판단한다.
- 속성은 유산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산의 능력을 보여준다.
- 속성은 유산의 보존·관리체계와 계획을 변경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초자료이다.

5.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있어서 속성 이해의 필요성

1) 국내법에 따른 속성 이해의 필요성

문화재청은 2021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세계유산을 등재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며, 실태를 점검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세계유산의 등재부터 보존상태에 대한 정기점검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사항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속성(attribute)’이다. 법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에 따른 세계유산의 등재,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그리고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과 각종 행위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이해와 속성 규명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2)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이행을 위한 속성 이해의 필요성

2021년에 최종 개정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역시 속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78항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전성과 진정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제82항에서 유산의 가치는 다양한 속성을 통해 표현되며, 속성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담아내고, 전달하는 속성은 세계유산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등재하는 유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속성을 제시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존관리 중심의 유산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속성 이해의 필요성

1972년 「세계유산협약」 이후 2022년에 50주년을 맞이한 세계유산제도는 등재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등재된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개발과 유산의 보존 간에 합리적인 판단을 중점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는 세계유산제도가 보존관리에 더 역점을 두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유네스코와 자문기구는 2011년에 첫 유산영향평가 지침(Guidance on Heritage Impact Assessments for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을 발간한 후, 2022년 8월에 개정판(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을 발간하였다. 이들 지침에서는 유산영향평가의 내용, 방법, 절차,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2022년 개정 지침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 간의 관계, 속성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추출방법을 이전 지침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산영향평가의 가장 첫 단계이자 판단기준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유산영향평가는 등재당시에 인정받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치를 담아내고 유지하는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국내 세계유산의 속성추출은 반드시 필요

하다. 2022년 개정지침에 의하면 유산영향평가는 모두 11단계로 수행하는데, 이 중에서 1단계 걸러내기과 2단계 살펴보기의 단계는 본 영향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국가기관에서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유산이 지닌 가치와 속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개발행위가 계획되었는지, 개발행위로 인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본 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들 두 단계에서는 파악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4).

영향평가 1단계 및 2단계	주요내용
1단계 걸러내기 (scre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평가가 필요한가? ● 유산의 OUV와 기타 유산/보존가치는 무엇인가? ● 유산의 속성은 무엇인가? ● 계획한 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공존 가능한가? ● 계획한 행위가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2단계 살펴보기 (scop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정보, 영향, 지리적적 권역, 역사적 시점 등이 유산영향평가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 영향평가를 위하여 어떤 사항들을 의뢰하여야 하는가? ● 어떠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정보가 있는가? 그러한 정보가 없다면 현재의 정보원에 근거하여 유효한 영향평가가 실현될 수 있는가?

표 3-4. 영향평가 8단계 중 1단계 및 2단계 주요 내용과 속성

1단계에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을 파악하여야 하고, 2단계에서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단계는 3단계부터 11단계까지의 본 평가에 앞서서 해야 할 일종의 기초적인 현황파악 단계에 해당한다. 특정 방식, 규모, 범위의 개발행위가 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지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이 기준점이므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등재 당시 인정받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도출한 객관적이고, 합의된 속성(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법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유산영향평가 관련 지침 등에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에 해당하는 모든 과정에서 속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유산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통해 볼 때 이미 등재된 국내 15개 세계유산과 앞으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속성을 통해 설명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유산영향평가, 정기보고, 등재신청서 작성 등에 있어서 속성추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6. 속성 추출절차와 방법

2022년에 발간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위한 지침과 툴킷(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에서는 다음과 같이 8단계로 속성추출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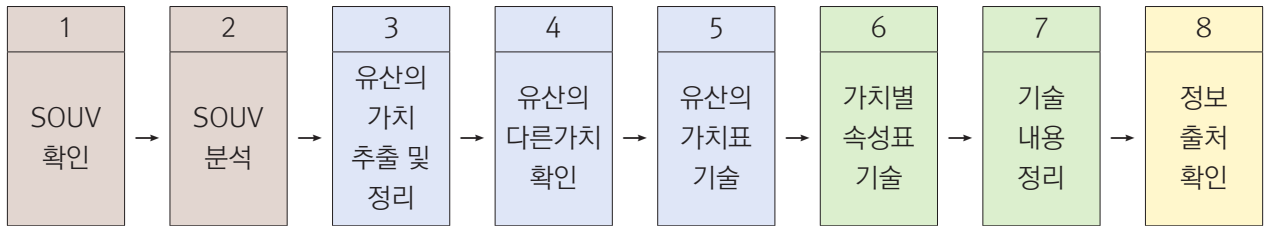


표 3-5. 영향평가 툴킷에서 제시하는 속성추출과정(8단계)

이 절차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4단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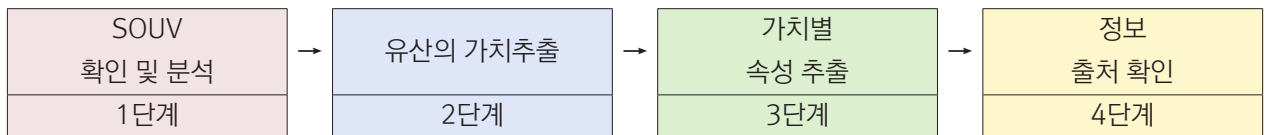


표 3-6. 간략화된 속성추출 과정(4단계)

위의 4단계의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계	주요사항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재 시 인정받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항목 확인 ● 등재결정문 및 SOUV 검토 및 가치 확인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UV 및 등재신청서에 서술된 가치내용을 분석하여 세계유산적 가치를 재분류 ● 유산의 다른 가치 확인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서술되지 않은 국내관점에서의 가치 확인 : 지역공동체 등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사회적·문화적·공동체적·경제적 가치 ● 세계유산적 가치와 기타 가치를 서술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가치별로 각 속성유형을 대입하여 속성 추출 ※ 각 가치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속성의 유형이 다양할 수도 있지만 단일 유형의 속성이 해당가치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음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또는 SOUV에 모든 속성이 나열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등재신청서에 서술되지 않은 속성을 추가할 수 있음
4단계	정보출처확인

표 3-7. 4단계 속성추출 과정에서 단계별 추진 내용

【부록 3-1】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문건 내 속성 관련 서술내용

1.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2021)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과 완전성의 개념과 함께 속성의 유형을 들어 간접적으로 속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전성과 진정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제78항),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가치에 대한 정보원의 신뢰성과 진실성에 의존한다(제80항). 유산의 가치평가와 연관 정보의 출처에 대한 신뢰성은 문화 안에서, 또는 문화별로 차이가 있으며, 유산이 속하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81항).

유산의 문화적 가치는 다양한 속성을 통해 표현되는데, 그러한 속성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포함된다(제82항).

-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 재료와 물질(materials and substance)
- 용도와 기능(use and function)
- 전통, 기술, 관리시스템(traditions,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s)
- 위치와 셋팅(location and setting)
- 언어와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 정신과 느낌(spirit and feeling)
- 기타 내·외적 요소(oth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유산이 갖추어야 하는 완전성은 유산과 속성의 전체성(wholeness)와 온전성(intactness)을 포함한다. 전체성은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모든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온전성은 그러한 요소들이 양호한 상태인지를 말한다(제88항). 문화유산의 완전성은 유산의 물리적 측면과 중요한 특징이 양호한 상태로 구성요소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제89항). 자연유산의 완전성은 생물학적 과정과 지형적 특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제90항),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각 기준 중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등재기준(vii)부터 (x)까지 각각 완전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구분된다. (제92항~제95항).

2021년 개정된 운영지침은 ‘사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평가신청서에 속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신청서 제4장 완전성, 제5장 진정성 항목). 제4장 완전성 4.a 항목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유산구역 내에 있는 주요 속성/요소를 서술하도록 하고, 이들 요소가 어떻게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지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4.b항목에는 이들 요소의 보존상태나 보존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을 적도록 하였다. 제5장 진정성 5.a 항목에는 각각의 관련 속성이 유산의 가치를 얼마만큼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지 서술하도록 하고, 5.b 항목에서는 어떠한 유형과 정도의 변화가 유산 속성에 발생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운영지침에서는 유산의 속성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고, 지속시키는 요소로서 가치와 속성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운영지침의 진정성에 관한 조항(제82항)에 명시한 다양한 속성 유형을 통해 표현되고 전달되며, 그러한 속성 유형의 전체성과 온전성이 유산의 가치를 지속하도록 하는 요건임(제89항)을 알 수 있다.

2. 세계유산 등재준비를 위한 지침(2011,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2011년에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담아 발간된 이 지침서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속성의 개념과 위치를 서술하고 있다. 우선 속성(또는 ‘feature’를 함께 사용)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연관성을 지니거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측면(aspects of a property which are associated with or expres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으로 정의하고, 속성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기준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속성은 유형적 무형적 측면이 있으며,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유산이나 복합유산의 문화적 측면에만 해당하는 진정성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p61), 이는 속성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성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의 전체성과 온전성에 대한 척도(p65) 라고 설명하여, 진정성과 함께 속성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완전성을 요건으로 갖추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속성유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Attributes are aspects of a property which are associated with or expres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ttributes can be tangible or intangible. The Operational Guidelines indicate a range of types of attribute which might convey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cluding:

- form and design;
- materials and substance;
- use and function;
- traditions,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s;
- location and setting;
- 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and
- spirit and feeling (Paragraph 82).

This list is for guidance. It is essential that the attributes identified for a property should flow from the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the justification for the criteria.

Attributes must be identified as they are vital to understanding authenticity and integrity, and are the focus of protec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r natural properties, it is more common to speak of 'features', although the word attributes is sometimes used. Examples of attributes for natural properties could include:

- visual or aesthetic significance;
- scale of the extent of physical features or natural habitats;
- intactness of physical or ecological processes;
- naturalness, and intactness of natural systems;
- viability of populations of rare species; and
- rarity.

이 지침에서는 속성의 특성과 속성추출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유산은 사회적 구조, 경제적 요구, 정치적 맥락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에 연결되어 있다. 이는 널리 알려진 사건, 인물, 예술·문학·과학·음악 작품 등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협약은 유산목록에 유산을 등재하는 방식으로서 사상이나 인물이 아니라 그들이 미친 영향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러한 맥락에서 등재되는 유산은 속성을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속성은 물리적 측면이나 요소들이지만 유산의 물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보도 될 수 있다. 즉 유산의 경관을 형성하는 자연적·농업적 과정, 사회적 제도, 문화적 전통도 포함될 수 있다.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특정한 경관적 특징, 서식지, 환경적 요소와 연관된 측면도 포함된다.

이러한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가치와 속성을 보여주는 지도나 관계도를 그려보면서, 유산이 지닌 속성에 대한 이해 외에도 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해하거나 유산의 경계가 적절한지도 파악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속성은 유산의 보존관리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3. 유산영향평가 지침과 툴킷(2022, 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

이 툴킷에서는 진정성과 완전성, 그리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고 전달하는 속성의 유형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속성을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유형적 측면에는 유산의 물질적 패브릭과 다른 눈에보이는 특질 등과 연관한 모든 물리적 측면으로 보고, 무형적 측면은 과정, 사회적 방식, 문화적 전통, 유산의 물리적 요소에 반영된 연관성과 관계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ttributes are the elements of a heritage place that convey its values and makes them understandable.

- (tangible aspects) physical qualities, relating to the material fabric and other tangible features
- (intangible aspects) such as processes, social arrangements or cultural practices / associations and relationships which are reflected in physical elements of the property.

또한 유산의 속성은 세계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평가받는 방식이나 전달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은 문화유산 장소의 경우 건물이나 기타 건조물, 그리고 그 형태, 재료, 디자인, 사용과 기능, 배치, 농업과정, 종교의식, 건축기술, 시각적 관계, 공간적 연관성 등이 속성에 해당하며, 국가적 유산의 경우 특정한 경관적 특성, 서식지역, 대표생물종, 환경적 수준과 연관된 측면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록 3-2】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따른 속성추출 시 고려사항

	등재기준	가치분류 및 속성추출시 고려할 세부사항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석굴암)	예술, 기법, 기술 등의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수준 지님, 유명한 작가의 걸작품 또는 제작자를 알 수 없더라도 특정시대의 혁신적 기술과 사상 구현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 (화성, 경주, 남한산성, 백제)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가 핵심 -유산 자체에 교류 흔적 반영 -교류에 주요영향을 미친 흔적 반영 -상호교류로 인한 융합이나 수용의 결과물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화성, 경주, 고인돌, 조선왕릉, 하회, 백제, 서원, 산사)	‘과정’으로서, ‘특출한 증거’가 중요함 -오랜기간 동안 형성된 전통, 삶의 방식이나 문명형성 -다수 또는 대규모 집단이 오랜기간 형성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석굴암, 해인사, 종묘, 화성, 조선왕릉, 하회, 남한산성)	‘인류역사에서 변화와 발전의 중요시기 또는 중요단계’가 핵심 -중요한 원형이나 중요유형의 대표사례에 해당하는 유산 -단일국가 또는 민족 보다는 지역별 전세계적 맥락에서의 원형 또는 대표사례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육지사용’이 핵심 -오랜기간동안 정주생활이나 사용과 연관성이 있는 유산 -특정 문화와 탁월한 유형의 문화를 보여주는 유산

	등재기준	가치분류 및 속성추출시 고려할 세부사항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해인사, 조선왕릉)	-사건, 인물, 사상, 신조, 전통 등이 유형적으로 구현된 유산이거나 -그러한 신념, 사상, 전쟁과 갈등 등이 인류역사에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유형적인 산물(도서, 회화 등)이 명백히 잔존하는 장소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제주)	‘최상의 자연현상’과 ‘특출한 자연미나 미적 중요성’이 핵심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제주)	지구의 역사 생명의 기록 육지형태의 발전에 있어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적 자연지리학적 특징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지구의 생태계, 생태학적·생물학적 지식과 이해에 기반하여 평가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갯벌)	멸종위기, 생물학적 다양성 등이 핵심



IV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OUV 속성 도출과 보호 활용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OUV 속성 도출과 보호 활용

박진재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기획조정실장

세계유산협약은 전 인류에 중요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있는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국제협약 형식으로 채택한 국제조약이다.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OUV가 인정된 유산으로,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한다. 등재를 위해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유산의 OUV를 입증하여 신청서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유산의 OUV를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술해야 하며, 유산의 가치와 속성에 대한 설명이 신청서 기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유산 지침들¹에서 유산의 OUV의 입증을 위한 구성요소와 가치를 평가하는 요건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에 대한 OUV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유산의 OUV 입증 요소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해당 유산의 OUV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신청서에 국내외 비교 분석을 통해 한 문화권에서 해당 유산이 인류의 공동유산이 되어야 하는 보편성(Universal)과 함께 탁월성(Outstanding)을 진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OUV의 입증²은 등재 기준(Criteria i ~ x)을 설정하고, 유산에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고 적절한 규모와 위협 요소가 없음을 뜻하는 완전성(Integrity)과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에서 제시한 유산의 진실한 정보를 담은 진정성(Authenticity)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존관리 계획과 지역사회의 참

1. OUV 관련 내용은 아래 지침들을 참고하여 작성

- UNESCO, ICCROM, ICOMOS and IUCN(2022), 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
- World Heritage Convention(2021),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ICOMOS(2008), The World Heritage List: What is OUV? Defin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Pari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
- UNESCO(2011),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Second Edition, World Heritage Resource Manuel Series.

2. Operational Guidelines, Paragraph 78.(OUV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산이 완전성 및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산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해당 유산의 가치를 보호 및 관리(Protection and management)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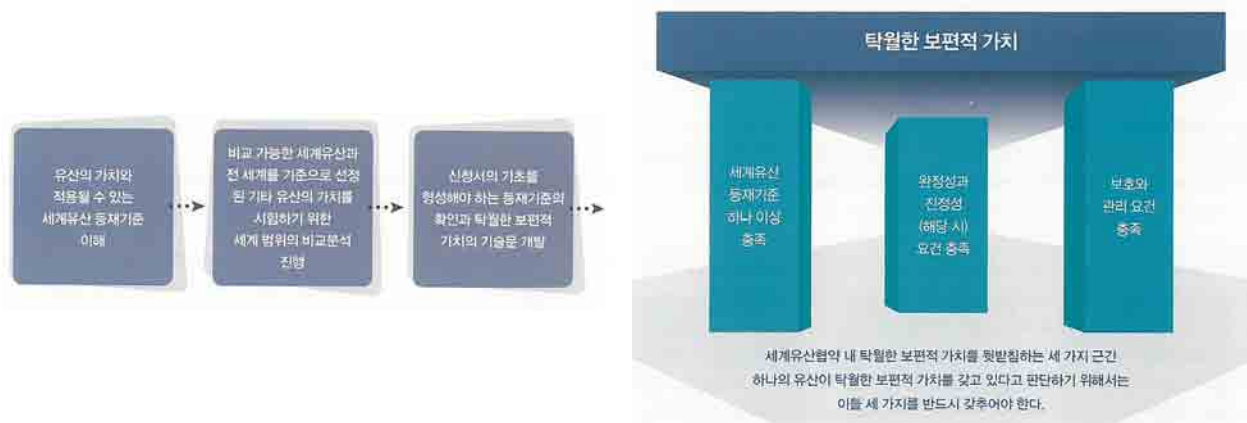


그림 4-1. OUV 확인과 정의
 출처: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2011. 문화재청 번역본)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산의 영구적인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Operational Guidelines, Paragraph 49.)

●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SOUV)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때 세계유산위원회가 채택하는 공식적인 기술문이다.(2007년 이전 등재의 경우 소급함). 유산이 왜 OUV를 가진다고 보는지, 관련 등재 요건, 완전성(문화유산의 경우, 진정성도 포함)의 조건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OUV를 지속하기 위한 보호 관리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요약한다. 채택된 OUV에 대한 기술문은 유산과 유산의 보존 상태를 관리 및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참고자료를 가리킨다.

출처: HIA Toolkit 용어 사전(GLOSSARY)

● 세계유산의 가치(Values)와 속성(Attributes)

SOUV에는 유산의 가치와 속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가치(Values)는 유산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고, 유산/보존 가치의 특별한 조합은 그 장소가 왜 특히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세계유산의 경우 ‘모든 인류의 현재 및 미래세대에게 중요’하다고 간주 되는 가치가 바로 OUV이다. 속성(Attributes)은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다. 이는

물리적 구조 및 기타 유형적 특징과 관련된 물리적 특성일 수 있지만, 유산의 물리적 요소에 반영되는 연대 관계뿐만 아니라 과정, 사회적 협의 또는 문화적 관행과 같은 무형적 측면일 수도 있다.

유산은 반드시 속성의 도출을 통해 OUV를 증명해야 하고 국내외 비교 분석을 통해 해당 유산의 OUV를 뒷받침해야 한다. 여기서 비교 분석의 목적은 해당 유산이 특별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국제적 맥락에서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연속유산의 경우 구성요소(component parts)들의 선정 근거를 이용해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 **가치(Values)**

유산 보존의 맥락에서 가치는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해 보호해야 할 만큼 중요한 유산 장소인지 구별하게 하는 특성이다. 가치는 사회적 및 문화적 요소를 범위에 두고 정해진다. 사회의 한 섹션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을 경우라도 반드시 다른 섹션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는 않으며 또 다른 이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한 세대에서 가치 있던 유산이 다음 세대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유산 장소는 주로 여러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미학적, 건축학적, 생물학적, 지질학적, 사회적, 영적 등. 이러한 가치들이 유산 장소의 속성으로 구현되고 전달된다.

● **속성(Attributes)**

속성은 유산 가치와 보존 가치를 나타내고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유산 장소의 요소이다. 이것은 재료 재질, 유형적 특징, 물리적 특징을 가리키나 과정, 협약, 문화적 관습, 유산의 물리적 특징에 반영된 연관성과 관계성 같은 무형적 특징 또한 가리킨다.

문화유산 장소의 경우 건물, 지어진 구조물과 그것의 형태, 재료, 디자인, 기능, 그리고 도시 배치, 농경 과정, 종교적 의식, 건축 기술, 시각적 관계, 영적 연결과 같은 요소가 있다.

자연유산의 경우 경관의 특유한 특징, 서식지, 깃대종, 환경의 질에 관한 요소(온전함 및 자연 그대로 보존된 환경의 질), 서식지의 규모나 환경 보존의 정도, 야생종의 개체 수 및 생존 능력과 같은 요소가 있다.

보호, 보존, 관리 조치의 초점은 속성과 각 속성 간의 상호 작용에 두어야 한다.

용어 ‘속성’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할 때 특정하게 쓰이며 속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유산을 오랫동안 보호하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속성의 공간적 분포와 각각의 보호 요건은 유산의 경계와 관리 조치를 위한 정보를 준다.

● **비교 분석(Comparative Analysis)**

비교 분석의 목적은 첫째, 세계유산목록에 신청유산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둘째, 동일한 지리적 문화권(문화유산) 또는 세계적으로(자연유산) 비슷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후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유산이 없음을 증명하는데 있다. 지리적 문화권은 해당 유산으로 표현되는 가치에 따라 다양하며 지역 혹은 세계적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비교 분석은 잠정적인 OUV와 관련 특징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를 정의하는 데서 출발해 여러 속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해당 유산에는 어떤 특별한 중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속유산도 단일요소로 이루어진 유산과 동일한 원칙을 기준으로 유산 전체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유산의 잠정적인 OUV, 관련 특징과 속성을 여타 유산과 비교해 첫째, 세계유산 등재 여지가 있는지 둘째,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비슷한 연속유산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연속유산의 비교 분석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는 바로 유산 요소의 선택 문제이다. 신청서에는 해당 유산 요소의 선정 논리가 설명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른 유사 유산과의 비교, 그러한 유산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그러한 가치와 속성의 결합이 세계유산목록에 이미 대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등재된 다른 유사 유산과 비교해 이루어지며, 마지막 단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출처: HIA Toolkit 용어 사전(GLOSSARY)

2. 등재신청서에 기술된 한국의 서원 가치

유학에서 교육은 후속 세대의 재생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 중 하나이다. 또한 국가별로 교육의 커리큘럼, 대상, 목적,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유학문화권의 국가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교육유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는 유학을 대상으로 한 문화 전통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유학 문화전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대표적인 속성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의 교육시설에서도 확인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유학은 수백 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기 독자적인 특성을 달성하였다. 교육시설은 국가별로 유학이 정착되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산

이다. 유학은 교육을 통해 달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및 사회는 유학의 사상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해 갔다.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은 각 시기별로 다양한 유학 사조를 바탕으로 각국의 유학 전통을 이끌어갔다. 또한 유학문화권에 해당하는 전 국가들에서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유학 교육을 권장하고 이를 사회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었다.

유학 교육시설은 지역적 전파, 사회적 확산과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유학 교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교육방식과 사회적 역할의 개별적 특성은 지역별 유학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학 교육시설은 독립적인 유산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립 교육시설은 지역적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 **국외 유산과 비교 분석(Comparative Analysis)**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교육유산이거나, 유학 교육유산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위한 국외 유사 유산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답사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코모스 자문실사에 따른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비교 분석 대상을 유학 문화권인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였고, 이 중에서도 사립 유학 교육기관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지역	2013년 답사(유산명)	지역	2017년 답사(유산명)
중국	- 악록서원(岳麓書院) -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 아호서원(鵝湖書院) - 무이정사(武夷精舍) - 동림서원(東林書院)	중국	-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 석고서원(石鼓書院) - 녹강서원(綠江書院) - 악록서원(岳麓書院) - 송양서원(崇陽書院)
일본	- 유시마성당(湯島聖堂) - 코도칸(講道館) - 아시카가학교(足利學校) - 시즈타니학교(閑谷學校) - 토주서원(藤樹書院) - 하쿠엔서원(泊園書院)	일본	- 데키주쿠(현 오사카대학) - 토주서원(藤樹書院) - 시즈타니학교(閑谷學校) - 쇼카손주쿠(松下村塾) - 칸키엔 - 도겐쇼우샤
모로코	- 페즈 지역 Madrasa - 메크네스 지역 Madrasa - 카사블랑카 지역 사원		-
이스탄불	- 이스탄불 지역 (Mosque & Madrasa)		

표 4-1. 한국의 서원 국외 비교 유산 답사(1, 2차 추진)

한국의 서원은 강학과 제향, 교류와 유식 공간을 함께 갖춘 유학의 시설 중 교육 시설에 속하며 민간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유학문화권에서 유학 교육의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 전승한 유산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 성격을 보존·전승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 특성은 다음의 측면에 주목하게 한다.

- 한국의 서원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의 확산 속에서 유학문화권의 보편성과 한국의 지역성을 함께 드러내는 교육 유산이다.
- 한국의 서원은 지방의 사립 교육기관으로서 관학의 하향적 교화로부터 탈피하여 지식에 기반하여 민간 스스로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거점이다.
- 한국의 서원은 유학의 교육시설로서 강학과 제향, 교류와 유식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이들을 하나의 배치 전형으로 이룩한 독특한 건축적 전형에 해당하는 유형 유산이다.

주요 비교연구의 대상은 사립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서원, 일본의 사숙(私塾)이다. 이외에 유학문화권의 대표적인 관립 및 공립 유학 교육시설들도 부가적으로 검토되었다. 중국에는 서원 이외에 국립학교인 국자감과 지방 공립학교인 부학이 있다. 일본에는 사숙 이외에 국립학교인 유시마세이도와 지방학교인 한코와 고가쿠가 있다. 베트남에는 사립 유학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립학교인 반미메우가 현존한다. 이들은 이미 복합유산의 일부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각 국가 내에서 유학 교육기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서원과 동아시아 유학 교육시설의 유산들을 주요 속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 유학 교육시설의 성립과 발전 과정
- 유학 교육의 제향 인물과 제향 의례
- 유학 교육시설의 사회적 기능
- 유학 교육시설의 건축물 배치형식
- 유학 교육시설의 전각형식 경관특징

IV. 연속유산‘한국의 서원’ OUV 속성 도출과 보호 활용

비교대상		한국	중국	일본
비교항목		신청유산을 포함한 한국과 북한의 서원	백록동서원, 송양서원, 악록서원, 석고서원 등	사숙(송하촌숙, 도주서원, 함의원 등)
도입시기		- 16세기	- 7세기	- 17세기
설립목적		- 성리학 지식인 양성 (인성교육 중심) - 지역에 기반한 성리학적 선현의 제향	- 유학 지식인 양성에서 점차 관료양성으로 변화 - 관학의 보조	- 유학을 포함한 지식인 양성
교육대상		- 지역 유생	- 지역, 계층 제한 없음	- 무사, 가신 그룹
교육학문		- 성리학	- 유학(시대에 따라 변화)	- 유학, 의학, 신학 등 다양
제향	인물	- 지역단위의 선현	- 성현	-
	의례	- 존재, 현재까지 지속	- 존재, 일부 서원만 유지	-
사회적 기능		- 지역 공론의 중심지 - 지역 교화의 중심지	- 국가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높았음	- 근대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
건축	입지	- 자연 경관 고려 - 제향인물과의 연고지	- 접근성 고려 - 도시공간 등	- 접근성 고려 - 도시공간
	기능	- 제향, 강학, 유식	- 강학, 제향, 장서	- 강학
	건축 구성요소	- 사우 - 강당, 재사 - 도서관 - 누정	- 사우 - 강당, 재사 - 도서관 - 반지 - 비석군(과거합격)	- 강당 - 재사 - 도서관
	배치유형	- 공동의 배치 유형이 존재	- 서원별로 개별성이 강함	- 단일건물 중심
	경관구성	- 자연친화적 - 개방과 관입 구형	- 인위적 - 폐쇄적	- 인위적 - 폐쇄적
	지역성	- 좌식 생활구조 - 온돌과 마루의 조화	- 입식 생활구조 - 의자, 화로	- 좌식 생활구조 - 다다미, 화로

표 4-2. 동아시아 지역 유학 교육시설과 한국의 서원과 비교

● 국내 유산과 비교 분석(Comparative Analysis)

14세기 말 건국된 조선은 성리학을 유일한 유학 사상으로 발전시켜왔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교육기관은 관립인 성균관과 향교, 사립인 서원으로 구분된다. 이들을 설립 주체, 교육 목적, 제향 대상, 입지와 건축 유형에서 비교해보면 9개 서원의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한국에는 9개

서원 이외에도 많은 서원들이 현존하고 있다. 한국에 소재한 서원들 중에서 9개 서원은 한국 서원이 교육기관으로 정착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서원이 보유한 총체적 특징을 단계적·부분적으로 보여준다. 완전성과 진정성의 측면에서도 9개 서원은 한국에 현존하는 서원 중에서 독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 중 서원과의 차별적 특징: 향교, 성균관과의 비교

비교대상 비교항목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주체	- 사림	- 지방정부	- 중앙정부
분포	- 지역별 다양	- 지방군현별 1개	- 수도에 1개
설립목적	- 인성교육 - 선현제향 - 사림 활동의 기반	- 관료 양성 교육 - 공자제향	- 관료 양성 교육 - 공자제향
사회적 역할	- 지역 공론 형성 기능 - 지역 문화 교류 기능	- 없음	- 유생 공론 형성 기능
입지	- 제향 대상과 관련성 - 교육 목적에 부합한 환경	- 지방 행정 중심지	- 수도
구성요소	- 사우(신현), 전사청 - 강당, 재사, 도서관 - 누각, 정자	- 사우(공자), 전사청 - 강당, 재사	- 사우(공자), 전사청 -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유형	-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 강학, 제향	- 강학, 제향

표 4-3. 서원, 향교, 성균관의 비교

● 9개 서원의 선정 근거: 한국의 여타 서원과의 비교

- A. 한국 서원역사의 초기에 설립되어 그 역사를 지속했는가?
- B. 현재까지도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는가?
- C. 한국 서원의 총체적 특징을 대표하는가?
- D. 한국 서원 건축 유형의 단계별 완성을 보여주는가?

이상과 같이 9개 서원은 건립 시기, 지속성, 서원 전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가치의 충족, 서원 건축 정형화의 단계별 입증, 진정성과 완전성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여타 서원에 비해 탁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9개 서원을 선정한 이유이다.

3. 한국의 서원 속성(Attributes)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유사 교육기관과 차별되는 속성을 띠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유학 교육 시설의 보편성 속에서 조선이라는 특정 문화의 증거가 된다.

- 유교문화권 국가들은 모두 유학 교육의 전통과 관련된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한국(서원), 중국(서원), 일본(사숙)에 존재하였다.
- 사립학교들의 교육 방식(체계)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중국은 관료 시험 등과 같은 정부 교육 정책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교과목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되었다. 한국은 지방의 사림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성리학을 학습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커리큘럼 등도 개별 학교마다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며 기술학, 의학, 난학(蘭學) 등 유학 이외의 학문들도 학습하였다.
- 학교의 제향 전통은 제향 인물의 삶과 철학을 제향 참여자들이 실천하기 위한 의례 행위이다. 교육 기관에서 강학과 결합된 제향 전통은 중국과 한국에서 나타난다. 중국에는 공자 등 다수의 인물을 제향하였다. 반면 한국에는 지역과 연계된 선현을 제향하면서 한국적 제향 전통을 구축하였다.
- 사립학교들은 학문이라는 토대를 통해 학문집단이 형성되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 집단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사립학교가 집단적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던 반면 한국은 서원이 유소(儒疏), 만인소(萬人疏) 등 사림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 중국과 일본은 운영 기간, 사회적 특징, 주변 환경, 건립 배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학의 배치나 건축물의 정형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서원은 사립학교 중에서도 서원의 주변 환경과 정형화된 건축 요소와 배치 형식이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서원이 사림이라는 집단 지성 모색의 결과로서 구현된 건축물이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서원은 국내 유사 유산과 비교하여 성리학 전통과 이 전통을 이끌어간 사림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준다. 또한 서원은 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독자적 건축 유형을 자발적으로 구현했다.

- 한국 사회에서 성리학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지배적 이념으로 만개하였다. 이 시기에 성리학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으며, 예학과 같은 실천 이론들도 한국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도층은 사림이라는 지방지식인 집단이었다.

- 교육기관으로서 창건 이후 개별 서원들이 지속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서원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국가에 의해 운영된 것이 아닌, 민간인 사림에 의해 건립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존재했던 많은 서원들은 운영 과정에서 중단과 재운영, 그리고 폐지를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건부터 약 400여 년의 지속성을 보유한 서원들은 유산적 가치가 높다.
- 9개 서원들은 조선시대 만개한 성리학이 정착되는 과정과 성리학을 선도한 사림 활동의 독특한 전통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의 성리학 확산 과정에서 성장했고, 사림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제향 기능은 한국의 서원의 중요한 전통 중의 하나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향의 지속은 제향 인물을 중심으로 서원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완성한다. 교육기관이 교육 자체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도 한국의 서원의 독특한 특성이다.
- 건축 유형의 관점에서 서원의 건축 요소, 배치, 입지, 그리고 특화를 이해하는 것은 집합적 유산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 서원의 정형을 선도한 한국의 서원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구분	등재기준(iii)					등재기준(iv)				
	서원발전	교육체계	강학특성	제향특성	사림활동	건축적특징	입지	배치	건축물	경관
소수서원	제도도입	●	●	●	○	건축요소	●	○	●	●
남계서원	설립주체	●	○	●	●	배치방식	●	●	●	○
육산서원	출판활동	●	○	●	●	누각도입	○	●	●	●
도산서원	학맥형성	○	●	●	●	경관구현	○	●	○	●
필암서원	운영방식	●	○	●	○	평지특성	●	●	○	○
도동서원	교육체계	●	○	●	○	경사특성	●	●	○	●
병산서원	사회활동	○	○	●	●	누각특화	○	○	●	●
무성서원	교화활동	●	○	○	●	입지특화	●	○	○	○
돈암서원	예학심화	●	●	●	○	강당특화	○	○	●	○

● 탁월한 총족 ○ 평균수준의 총족

표 4-4. 한국의 서원(9개 서원)의 속성(안)

위 내용들에 근거하여 한국의 서원(9개 서원)에 대한 속성을 도출했다. 그러나 세계유산목록 등재 시 최종 등재 결정문에서는 등재 기준 (iii), (iv) 가운데 (iii)만 채택되었다. 한국의 서원에 대한 가치는 국내외 비교 분석을 통해 추출된 속성에 근거한다. 이에 등재 결정문에 근거한 한국의 서원에 대한 핵심 기능과 입지 요소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속성을 정리할 수 있다.

- 서원의 교육체계 및 제향 활동(learning system and veneration activities of Seowon)
- 서원의 입지 및 배치(Setting and layout of Seowon)
- 서원의 경관(Landscape of Seowon)
- 서원의 건축물(Buildings of Seowon)

4. 한국의 서원 OUV (등재결정문)

등재 결정문 : 43 COM 8B.21

세계유산위원회는,

1. 의제 문서 WHC/19/43.COM/8B 및 WHC/19/43.COM/INF.8B1를 검토한 결과,
2. 대한민국 '한국의 서원' 을 기준 (iii)에 근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다.
3. 다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을 채택한다.

- 종합 요약 (Brief synthesis)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16세기 중반~17세기 중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서원은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탁월한 증거이다.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9개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중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 걸쳐 위치한다.

서원은 중국에서 도입되어 한국의 모든 측면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리학을 널리 보급한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 탁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서원의 향촌 지식인들은 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유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학습과 제향, 교류는 서원의 핵심적인 기능이었으며, 이는 건물의 배치에 잘 드러나 있다. 서원은 그 지역 지식인들인 사람이 이끌었다. 서원은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향촌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번성했다.

서원의 위치에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선현과의 연관성이다. 두 번째 요소는 경관으로, 서원은 자연 감상과 심신 단련을 위해 산과 물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서원에서도 사방이 뚫린 건물은 그러한 경관과의 연결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 학자들은 성리학 고전과 문학작품을 공부했으며, 우주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고인이 된 동시대 성리학자들을 배향하고 그들이 개척한 강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했다. 나아가 서원에 근거한 다양한 사회정치적 활동을 통해 성리학의 원칙을 널리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기준 (Criterion) (iii)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그 교육과 사회적 관습은 많은 부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인 증거이다

- 완전성 (Integrity)

서원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속성을 갖고 있다. 이는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도로, 수목과 시야 내 경관 등 인접 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 요소를 의미한다. 해당 유산의 이들 속성은 전반적으로 그 상태가 우수하다.

유산에 압력을 끼치는 주요 요소인 개발과 총해, 화재, 지진과 방문객 문제 등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진정성 (Authenticity)

본 유산은 진정성 요건을 충족한다.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 활용과 기능, 전통은 대부분 그간 지속되어 온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축소된 면이 있다. 서원의 위치와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두 곳의 서원은 최초의 위치에서 옮겨진 바 있다. 무형유산과 서원의 영적 측면 또는 전반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 보호관리 요건 (Management and protection requirements)

유산의 보호는 1차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며, 그 밖에 문화재청이 마련한 여타 유산 관련 법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령과 장관령도 이를 뒷받침한다.

9개 서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문화재 수리의 시행과 배향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유산의 체계적 보존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방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들 조례 또한 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단체의 설립과 운영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서원관리단과 추진위원회, 중앙 및 각 단위 지방정부가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관련 지자체나 개별 서원이 해당 유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서원관리단은 유산의 통합관리를 담당한다. 정부와 개별 서원이 각 서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며 추진위가 그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문화재청은 각종 지원을 담당하고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각 지자체 또한 관리단을 지원한다. 보존과 관련된 전문지식은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함께 제공한다.

개별 서원에는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종합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핵심이 되는 보존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라인도 존재한다. 통합관리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다.

위험 대비 대책 또한 일정 부분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과 시스템 또한 개발 중이다.

방문객 관리 내용 또한 만족스러운 상태이나 9개 서원을 단일유산으로 보다 잘 통합해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한국의 서원 속성 보호와 활용

세계유산 제도의 핵심은 등재 이후의 세계유산 보호 과정에 있다. 등재 이후 당사국들은 유산 보호를 위해 법률, 학술, 기술, 행정과 재정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역별로 6년 주기로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각국이 세계유산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세계유산위원회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 및 해제, 세계유산목록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세계유산 제도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모든 인류가 세계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을 장려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한국의 유산들은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기보고(Periodic Reporting)를 진행(2020년~2021년 7월)하였다. 정기보고의 목적은 세계유산목록 등재 당시의 OUV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역적 협력, 네트워킹 증진, 유산 정보와 변화, 기록을 최신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기보고 설문은 크게 국내 세계유산협약 이행 상황을 들여다보는 섹션 I(정부)과 개별 세계유산의 보존현황에 대한 섹션 II(유산관리자)로 구분된다. 정기보고 설문은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장(OUV에 대한 진술 및 속성 정의), 12장(요약 및 결론)을 통해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및 부정적 요인들이 속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서원도 세계유산목록 등재 당시의 OUV가 온전히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 여부를 조사하고 내용을 작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세계유산 관련 문서들에서 유산의 ‘속성’은 “세계유산의 OUV를 설명할 때 특정하게 쓰이며 속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유산을 오랫동안 보호하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이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유산영향평가(HIA) 제도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지침 및 툴킷에서도 유산의 OUV를 전달하는 가치와 속성들에 대한 분석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6일,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유교 교육기관의 하나로 9개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에 14개(광역 6, 기초 8) 지방자치단체가 분산적으로 서원을 관리하고 있다. 2015년 연속유산인 한국의 서원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 서원관리단(현재는 서원 세계유산센터)이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현지점검)을 통해 한국의 서원의 OUV를 전달하는 가치와 속성들에 대한 점검자료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국내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정기점검(1년 주기)과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에 근거한 정기보고(6년 주기)를 대비한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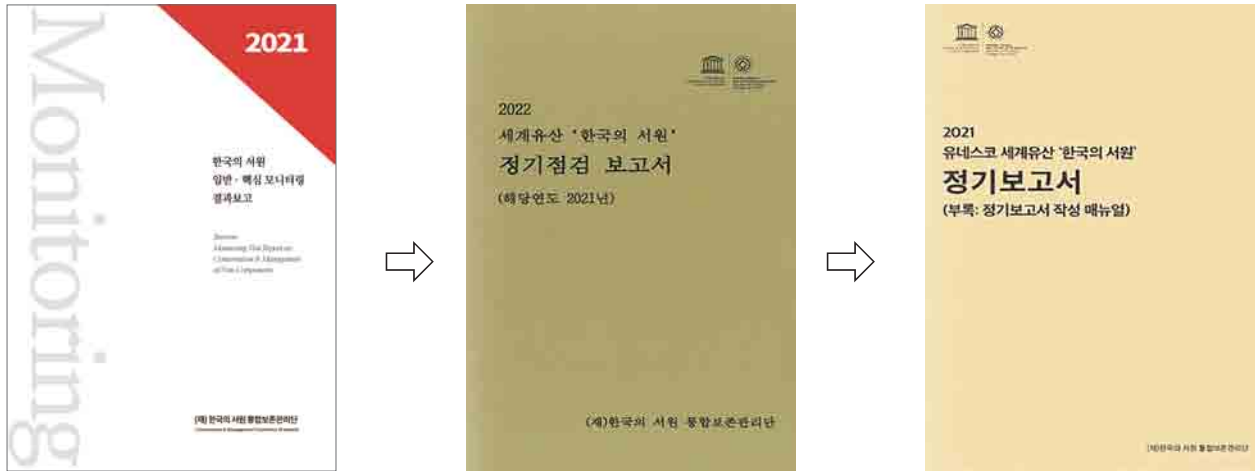


그림 4-2. 한국의 서원 유산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과정 (현지점검>정기점검>정기보고)

● **보호(Protection):** 모니터링(현지점검), 정기점검, 세계유산 정기보고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주체는 문화재청이다. 하지만 보수, 조사, 현상변경 및 불법행위 단속, 관광객 관리 등 실무적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원 유림 및 전문가, 서원 세계유산센터와 서원의 보호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가고 있다.

● **활용(Use):** 교육 및 홍보

한국의 서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적 가치를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각 서원의 문중 조직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소개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원의 현대적 가치를 해설하고 홍보하여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다.

구분	프로그램	목표	주요내용
제향	의례 해설 및 체험	각 서원에서 지속되어 온 제향의 의미와 가치 이해	- 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프로그램 - 단순제례: 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의미 해설체험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강학	전통 교육	각 서원에서 이루어졌던 인성 교육의 전승	- 서원교육 및 학문 활동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 프로그램 - 동·서재에서 기숙하며 학습(시험) - 시대, 인물 연구,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 교육 프로그램 - 고전 강독, 서원 기문, 시문 자료의 조사와 번역
교류와 유식	유적 답사 및 문화 체험	각 서원에서 이루어졌던 사회·문화 활동의 이해와 체험	- 서원 별 코스 개발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등 - 각 서원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와 저술, 업적, 유적 등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

표 4-5. 한국의 서원 가치 보호와 활용 프로그램

IV. 연속유산‘한국의 서원’OUV 속성 도출과 보호 활용

세계유산목록 등재 이후 서원 세계유산센터에서도 연속유산인 한국의 서원 가치를 온전히 보호,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업 목표	사업(국비 및 분담금) 내용		속성 연계
2019년	9개 서원 통합관리 및 홍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모니터링 지표개발·온라인시스템 구축계획 연구 - 세계유산 등재기념 표지석 디자인 마련 -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발간 - 등재신청서 및 보완자료(국/영문) 발간 	서원의 가치 연구 (지표개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등재기념식 및 기념행사 - 통합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연구 - 통합홈페이지 마련 - 홍보물 제작(통합브로셔, 달력, 사진집) 	서원의 가치 홍보 (통합 브로셔)
2020년	연속유산 관리 및 홍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무인계수시스템 구축(1차: 3개 서원)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 제작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통합 안내판 설치 - 9개 서원 건축도면집 제작(보완) 	서원의 가치 보호 (통합모니터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세계유산 축전(국비) - 통합교육교재 <한국의 서원 안내서> 발간 - 통합 홈페이지 제작(각종 자료 수록) - 소식지 「서원산책」 발간(1-2호) - KTX 홍보영상 방영,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서원의 가치 홍보 (통합 브로셔)
2021년	연속유산 관리 및 활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모니터링 - 무인계수시스템 구축(2차: 6개 서원) - 세계유산 정기보고 -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 고정밀 정사영상 촬영 - 주요 건축물 이력 데이터 구축 	서원의 가치 보호 (정기보고)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국내 학술포럼 개최(국비) - 한국의 서원 소식지 「서원산책」 발간(3-4호) - 문화관광해설사 및 서원관계자 대상 심화교육 실시 - 청소년 한국의 서원 알리미 운영 - 한국의 서원 통합리플렛 제작 	서원의 가치 심화교육 (학술포럼)

		사업 목표	사업(국비 및 분담금) 내용	속성 연계
2022년	세계유산 협약 전략목표	신뢰성 강화 Credibility	- 서원 건물 현판 책자 제작 - 서원자료집 발간을 위한 건축물 및 수목현황 조사	서원의 가치 보호 및 서원의 가치 활용
		보존 보장 Conservation	- 통합모니터링 운영 - 방문객 무인계수시스템 관리운영 - 9개 서원 통합관제 시스템(CCTV) 운영 - 유산관리를 위한 정사영상 촬영	
		역량구축 촉진 Capacity building	- 세계유산 국제 협력체계 구축 >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 세계유산관리 전문교육 시행 - 온라인 교육(국비)	
		소통 향상 Communication	- 소식지 「서원산책」 발간(5-6호) -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 9개 서원 통합홍보물 제작 - 디지털 콘텐츠 제작(국비)	
		지역공동체 참여 Communities	- 제향 절차 기록화 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서원 현장교육	
2023년	이행	신뢰성 강화 Credibility	- 서원 경관 자료조사 연구 - 주요 건축물 이력 원문 DB구축	서원의 가치 보호 및 서원의 가치 활용
		보존 보장 Conservation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세계유산 구역(유산, 완충) 안내표식 제작(디자인)	
		역량구축 촉진 Capacity building	- 통합관리와 홍보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 국내학술포럼 개최 -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비) - 전담해설사 양성(국비)	
		소통 향상 Communication	- 한국의 서원 홍보물 제작 - 통합홈페이지 홍보 - 소식지 「서원산책」 발간(7-8호)	
		지역공동체 참여 Communities	-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 지역 사진작가를 통한 사계절 화보집 제작(국비) - 청소년 선법단 운영(국비)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은 한국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탁월한 증거로, 유산이 지닌 주요 속성은 서원의 “교육체계 및 제향 활동, 입지 및 배치, 경관, 건축물”이다. 이러한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의 규명(세계유산 OUV)과 유지(모니터링, 정기 점검, 정기보고) 그리고 확산(교육 및 활용)이 세계유산협약이 추구하는 OUV를 지닌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설명 그리고 미래세대로의 전승을 목적으로 모두가 세계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인식하고 보호해가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V

남한산성
세계유산 가치와
등재기술문 작성

남한산성 세계유산 가치와 등재기술문 작성

노현균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문화유산팀장

1. 머릿글

남한산성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상류에 위치한 산성이다. 보통 산성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마사다와 같이 적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높은 산 위에 은둔하는 성곽을 생각하기 쉽지만 남한산성은 그 기능이 다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구 4,000여명이 생활하던 도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중요한 것은 각 도시간 행정, 군사, 경제의 교류를 위한 도로망 형성이다. 남한산성은 한강을 이용하는 수로(水路)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에서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봉화로(奉化路)’에 들어서 있어 육로(陸路)로 이어지는 교통망에서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남한산성은 17세기 초 동북아의 패권이 명(明)에서 청(淸)으로 이양될 무렵 강력한 신흥세력인 청의 황제 홍타이지에게 침입을 받아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한 굴욕의 현장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는 남한산성의 방어력에 의한 것이 아닌 강화도로 피난간 왕실인원들이 불모로 잡히는 등 외적 요인에 의하여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남한산성의 성문은 강제로 열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입지를 지녔으며, 병자호란 이후 더욱 성곽 방비를 위해 조선 정부에서는 노력하였다.

남한산성은 2014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38차 세계유산총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가치기준(OUV) 10가지 중에서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인정받았던 가치는 인류가치의 중요한 교류 증거를 내용으로 하는 2번 기준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단 단계를 내용으로 하는 4번 기준으로 충족하였다.

이 글은 남한산성이 가진 세계유산적 가치를 중심에 놓고, 이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남한산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성곽과 같은 군사유산은 삶과 죽음이 오가는 처절한 곳이지만 또한 방어를 위하여 축성 당시 최고의 기술이 반영된 곳이다. 그러면 남한산성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등재기술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2. 남한산성의 입지

조선왕조의 도성이자 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경복궁에서 남동방향으로 직선거리 21.5km 떨어진 남한산성은 도보거리 약 29km로 실제 걸어서 가면 8시간 20분 가량 소요되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당일 들어갈 수 있는 보장처(保障處)이다.

남한산성의 주봉 청량산(淸涼山)은 해발 497m로 서울방향이 있는 서측이 높고, 동측이 낮은 서고동저의 지형이다. 특히 서울에서 남한산성으로 오르는 서측 성 밖으로는 경사가 급하여 오르기 힘들데, 서문 밖으로 오는 길에 대하여 조선후기 실학자 박제가가 저술한 북학의(北學議)에 따르면 중국으로 갈 때 요동 근처의 산골짜기가 험준하기로 소문난 마천령(摩天嶺)이나 청석령(靑石嶺)과도 비유할 정도이다. 실제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파천(播遷)왔던 겨울에 눈으로 덮여있는 외곽을 산성 위에서 바라보면 조선시대 실학자인 유형원이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늘에서 만들어준 천혜의 요새다’라는 뜻으로 ‘천작지성(天作之城)’이라는 지세를 체감할 수 있다.

이와 반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성의 동측지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은 동문을 성안으로 깊이 끌어들여 동문 앞으로 오는 적을 양쪽에서 협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문 진입부 앞으로 계단을 높이 쌓아 말이나 마차가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적이 2.3km² 정도 되는 성곽 내부는 분지를 이루어 평탄하면서도 역시 서쪽보다는 동쪽이 조금씩 낮아 성내의 물이 모여 동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의 저서 중 국방체제에 관하여 저술한 『민보의(民堡議)』에 백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성곽의 입지를 기록하였는데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산성이 들어설만한 지형으로 산봉우리의 형태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고로봉(槲棹峯)형으로 사방의 가장자리가 높고 중앙이 꺼진 분지와 같은 형태이며, 둘째는 산봉(蒜峯)형으로 산정상부가 평탄하고 넓으며, 사방의 가장자리가 두절된 형태를 말하고 있다. 셋째는 사모봉(紗帽峯)으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형태로 봉우리 사이에 성벽을 구축하여 백성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이고, 마지막은 마안봉(馬鞍峯)으로 사모봉과 비슷하지만 두 개의 봉우리 크기가 같아 마치 말의 안장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정약용 선생은 백성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를 첫 번째로 언급한 고로봉형이라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산성의 예를 바로 ‘남한산성’이라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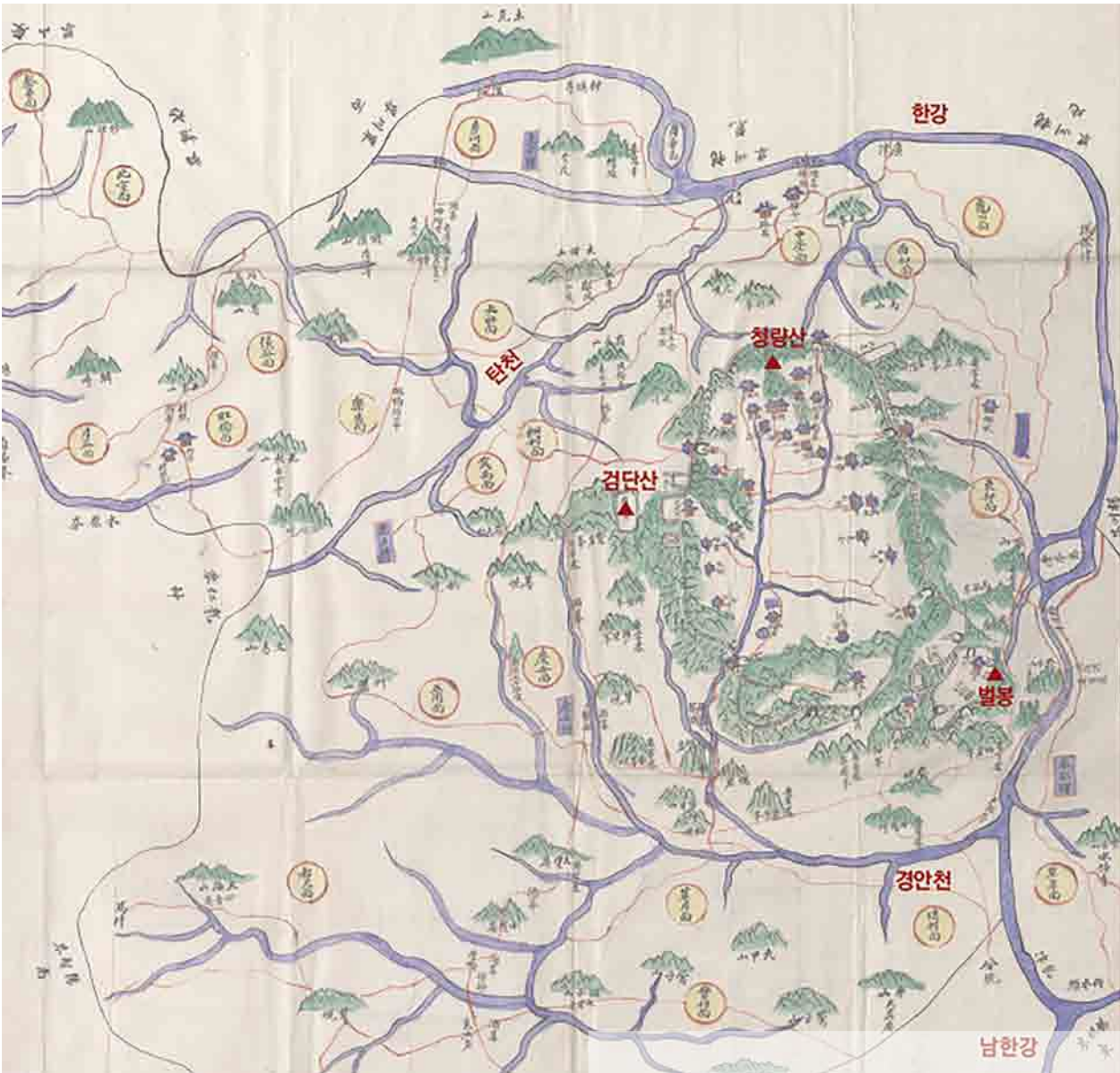


그림 5-1. 남한산성 자연환경 (출처: 남한산성 등재신청서)

3. 남한산성의 역사

고고학적으로 남한산성에서 발견된 인류의 흔적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행궁 뒤편의 후원에서 수습된 백제시기를 것으로 보이는 수혈주거와 토기이다. 백제의 초기 도읍과 관련하여 서울 주변으로 많은 주장이 있지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기원전 18년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신하들에게서 주변 경관을 이야기듣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북쪽으로는 한수(漢水)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이에 부합하는

한강 주변의 지형 중 부아악은 남한산성 수어장대가 있는 청량산 정상으로 보는 견해가 행궁 후원의 백제 유구와 더불어 생각해 볼 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림 5-2. 행궁터 발굴 (출처: 남한산성 등재신청서)

남한산성의 탁월한 지세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통일신라 때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672년 한산주(漢山州)에 주장성(晝長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와 당이 연합하여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자 당의 지방행정치소로 하기 위하여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설치하고 663년에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까지 ‘계림대도독부(鷄林大都督府)’를 설치하여 한반도에 대한 당의 지배를 시도하였다.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까지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한반도 지배에 야욕을 드러내자 신라는 670년부터 당과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접전지는 한반도 중부 한강유역이었다. 이에 신라는 당을 견제하기 위하여 672년 한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조망되는 한산주에 석재로 주장성(현 남한산성)을 쌓고, 성내 건물지를 조성한 것이다. 통일신라는 주장성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며, 675년 나당전쟁을 마무리 짓는 매초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끝을 낸다.

고려시대에 남한산성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다만 고려 시대의 문신이자 명문장가인 이규보(李奎報)가 저술한 『동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에 수록된 이세화의 묘지명에 몽고족의 침략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1231년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하여 개성을 포위하고, 계속 남하하여 광주성(廣州城)을 공격하였으나 광주부사 이세화 지휘아래 광주 백성들이 돌뿔 뭉쳐 방어하였다는 기록

이 있다. 이때 광주성이 남한산성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때 몽고군의 공략에 성공적으로 방어한 공로로 광주 백성들은 요역과 잡공을 면제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후 남한산성은 조선이 들어서고 각 고을중심의 방어전략인 진관체제(鎭管體制)로 임진왜란 이전까지 수축에 대한 논란만 있을뿐 별다른 역할없이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적들에 의한 국소적 침략에 대한 방비책이었던 진관체제는 임진왜란이라는 일본군 약 29만명이 침략한 대규모의 전쟁에서 별효과 없이 속속 무너지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훈련도감(訓練都監) 창설로 시작된 도성중심의 방어전략이 세워진다.

남한산성이 본격적으로 수축된 것은 반정(反正)으로 들어선 인조정권 초기에 큰 공을 세운 함경도 병마절도사 이괄이 반역의 모함을 받고, 아들이 한양으로 압송되자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때 인조는 한양을 버리고, 공주까지 파천(播遷)을 하게된다. 난은 진압되었으나 이 일을 계기로 수도 방위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면서 1624년부터 2년간 한양과 지근거리에 있으며, 충청도와 경상도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修築)하게 된다.

남한산성의 축성은 수도권 수비의 책임을 맡은 총융사 이서가 총괄하였으나 사찰 건립의 경험이 많은 승려 장인들도 대폭 참여하였다. 특히 승려들을 대표하는 도총섭은 벽암 각성대사로 8.9km에 달하는 남한산성의 성벽을 여덟구간으로 하고 각 구간에 기존 사찰과 새로이 사찰을 건립하여 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때 운영된 여덟 개의 사찰은 이후 전국의 승려들이 기간을 정하고 번갈아 오가는 '의승방번(義僧防番)'으로 남한산성의 성벽 유지관리와 화약제조 등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1626년 남한산성의 수축을 완료하고, 위급할 때 보장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성 아래있던 광주 유수부를 성내로 옮겨 읍치로 삼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백성들을 모민하여 4천여명이 모여사는 새로운 형태의 산성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재정비된 남한산성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동북아 신흥세력으로 등장한 청(淸)의 침입이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불리는 청의 한반도 침략은 기존 중국 영토의 패권을 쥐고 있던 명(明)과의 전면전에 앞서 명과 친분이 두터운 조선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당시 조선은 고려시대에 몽고의 침입으로 보장처 역할을 한 강화도가 왕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검증된 곳으로 북방의 침입시 보장처였으나 청군 선발대의 빠른 침입에 길목이 막혀 돌아서 남한산성에 입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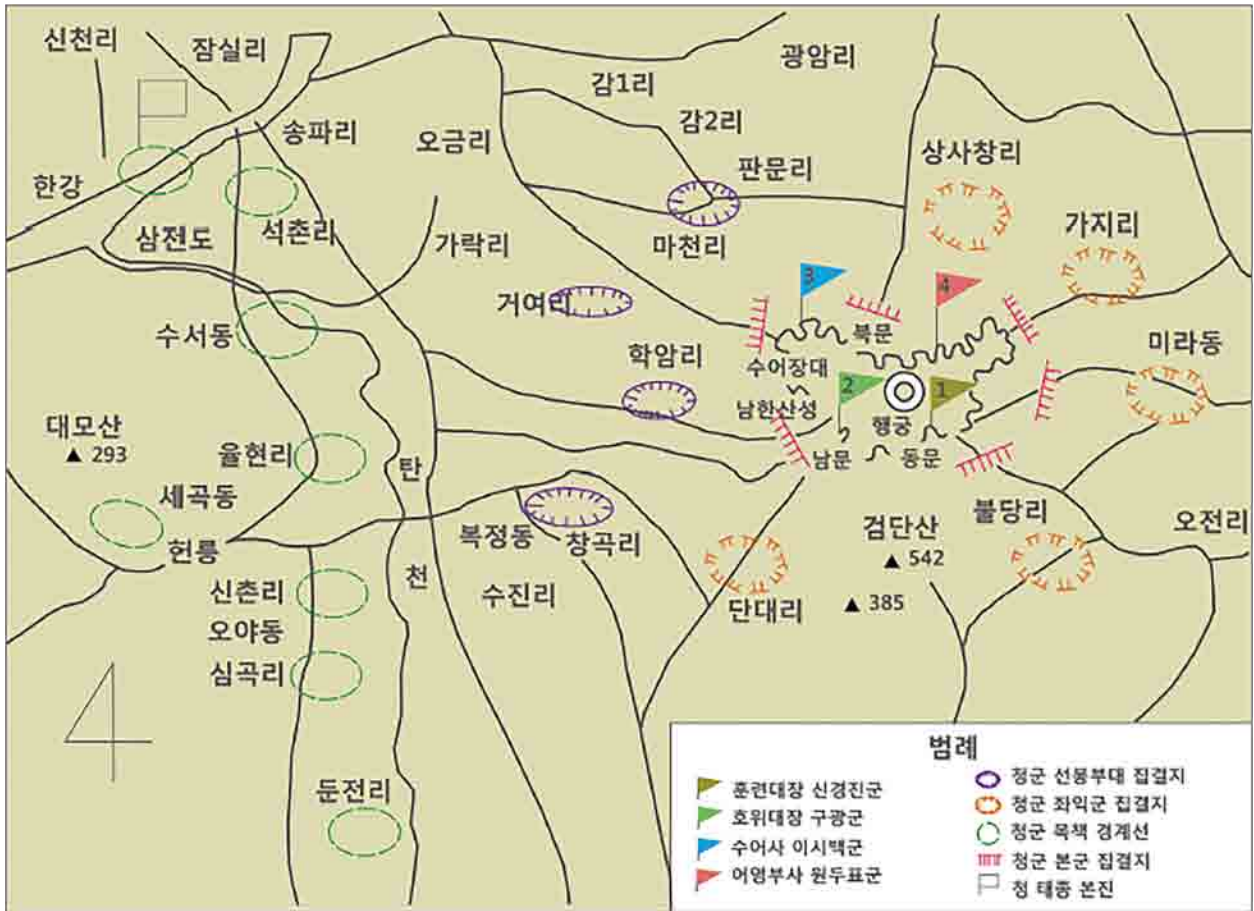


그림 5-3. 남한산성 전쟁상황도 (출처: 남한산성 등재신청서)

그러나 역설적으로 청에 투항한 명나라 수군의 공격으로 강화도 방어에 실패하고, 먼저 피난가 있던 왕자 봉림대군 등이 인질로 잡히자 47일간의 항전을 마치고, 산성 아래 삼전도로 나가 항복함으로써 병자호란은 막을 내린다. 병자호란은 청의 전쟁 중 황제가 직접 참여한 몇 안되는 전투로 홍이포 등을 사용한 집중공세를 받았지만 남한산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하였다.

조선에 세운 성곽의 공략이 쉽지 않음을 파악한 청은 조선과 새로운 조약을 맺으며, 향후 조선 땅에 성곽을 새로 쌓거나 고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는 병자호란시 성곽의 방어력을 직접 경험한 이후 숙종(1688년), 영조(1730년), 정조(1779년), 철종(1862년), 고종(1867년) 등 많은 국왕이 행차하면서 성곽을 수리하고 확장하였다. 이처럼 20세기 초 일본의 강제 침략에 의하여 성안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하던 1907년까지 굳건한 보장처로 사용되었다.

4. 남한산성의 성벽

남한산성의 구성은 통일신라 주장성을 기초로 한 ‘본성’과 동측으로 접하여 병자호란을 경험으로 청군이 점령하였던 봉암성, 한봉성 등 ‘외성’이 있으며, 남측으로 건너 검단산 정상에 소규모 방어 성으로 보루와 같은 기능을 한 ‘신남성’이 위치하고 있다.

남한산성의 규모는 본성의 둘레가 본성이 9.05km, 외성이 2.71km로 전체 둘레는 11.76km이다. 성벽에는 내외의 출입을 위한 대문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4개가 설치되어 있다. 당초 설치된 방위를 따서 남문의 경우 ‘진남문(鎭南門)’이라는 편액이 붙어 있었지만 1779년 정조의 행차시 ‘지화문(至和門)’으로 바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북문은 전승문(全勝門), 동문은 ‘좌익문(左翼門)’, 서문은 ‘우익문(右翼門)’으로 4대문의 이름이 새롭게 지어지게 된다.

공식적으로 개폐되는 대문 외에도 비밀스럽게 성내를 출입할 수 있는 암문이 본성에 12개, 외성에 4개가 설치되어 있다. 암문은 설치시기에 따라 그 모양이 차이가 있어 시기구분에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남한산성은 독특하게 성 밖으로 길게 내민 ‘옹성(甕城)’이 설치되어 있다. 옹성은 남측에 3개, 북측에 1개, 동측에 1개로 모두 5개로 초기 기록에는 위치에 따라 남옹성, 북옹성, 동옹성 등으로 기록되어있으나 현재는 북옹성은 ‘연주봉옹성’, 동옹성은 ‘장경사신지옹성’으로 불리우고 있다. 남옹성에는 1638년 병자호란 이후 설치한 기록이 금석문으로 남아있는데 옹성에는 모두 포대가 설치되어 있어 병자호란 이후 주요 지점에 방어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5-4. 연주봉옹성



그림 5-5. 장경사신지옹성



그림 5-6. 제 1·2·3 남웅성의 원경 (출처: 남한산성 등재신청서)

성벽을 타고 오르는 적을 효율적으로 제압하기 위하여 돌출된 성곽시설을 치성(雉城)이라 한다. 남한산성의 치성은 모두 5개로 대부분 옹성이 설치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측만 장경사신지옹성 위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성에서 봉암성과 한봉성이 만나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 치성의 형태는 치성의 너비와 성밖으로 내민 길이의 비례에 따라 시기별 차이가 있다. 너비가 더 넓은 치성은 통일신라 주장성 당시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너비보다 내민길이가 더 긴 치성은 조선시대에 새롭게 설치한 것이다.

성곽을 쌓은 석재 또한 통일신라 성돌부터 조선후기 성돌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가장 시기가 이른 통일신라 성돌은 화강암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남한산성 일대 지질이 편마암류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주변이 아닌 멀리 떨어진 화강암 산지에서 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석탑과 같이 현존하는 통일신라 석조문화재를 보면 대부분 화강암을 사용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통일신라에서는 성곽에서도 화강암을 주로 선호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가공된 성돌은 크기가 18~20×25~35cm이고, 뒷 뿌리 길이가 30~40cm이며, 외부 면이 옥수수알갱이 모양으로 굴곡지게 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사용된 성돌은 주로 남한산성 인근에서 채석한 편마암류의 돌들을 사용하였다. 성돌의 크기는 작은 것은 30~20cm부터 큰 것은 70~35cm까지 다양한데 하부에 큰 것을 주로 사용하였고, 상부로 갈수록 작은 성돌이 사용되었다. 성돌의 모양은 면석은 직사각형으로 하였고, 굴곡없이 평평하게 다듬었다.

성곽 위로는 총이나 화살 등 적들의 공격으로 몸을 숨기고, 효율적인 공격을 위한 여장(女牆)이 설치되어 있다. 여장 1타에는 총을 쏠 수 있는 총안이 3개씩 있는데 바닥 경사를 다르게 하여 성벽과 인접한 가까운 적을 겨눌 수 있는 근총안을 가운데 놓고, 양 옆으로 멀리 있는 적을 조준하기 위한 원총안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여장은 당초 막돌을 쌓아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만 병자호란 이후 1남옹성 인근에서 가마로 전돌을 구워 사용하였다. ‘중정 남한지’의 기록을 보면 이후 영조 때에 옥개를 기와로 다시 쌓고, 이후 정조 때 원성을 수축하면서 옥개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원성에는 옥개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정조 때 보수하지 않은 외성은 옥개가 기와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남한산성의 동서남북과 외성에는 성벽과 인접하여 각 지휘관이 맡은 구역을 통솔하는 장대가 설치되었다. 이 중 서측에 위치한 ‘서장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멸실되고, 그 흔적만 남아있다. 지도를 보면 서장대와 남측 남장대만 2층으로 한 중층건물인 것을 알 수 있다. 2층은 장졸들이 오를 수 있는 누(樓)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장대 2층은 ‘무망루(無忘樓)’ 남장대의 2층은 ‘타운루(唾雲樓)’라는 별도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을 정도로 다른 장대보다 위상이 높았다. 특히 서장대는 성내 가장 높은 곳에서 남한산성 전체를 지휘하는 수어사가 통솔하는 곳이라 ‘수어장대(守禦將臺)’라는 편액이 달려있다.

이처럼 남한산성은 통일신라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 중기와 후기까지 공성전에 사용된 무기발달에 따른 방어전략에 따라 축성의 발달단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성곽이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시 탁월한 보편적가치 중 4번 가치를 충족하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 남한산성의 성내 행정시설

남한산성 내에는 도시행정을 위한 광주부의 읍치시설과 성곽 방비를 위한 수어청의 군사시설이 공존하고 있다. 당초에 광주목사에게 방어사를 겸하게 하는 일원적체제로 했다가 1632년부터 수어사가 별도 임명되어 각 기관을 대표하는 부윤(府尹)과 수어사(守御使)가 각각 배치되는 양원적체제로 하였다. 그러나 한 공간에서 잦은 마찰이 일어나자 다시 일원적체제와 양원적체제를 반복한 후 최종적으로 1795년 정조 때에 광주부를 광주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부윤을 유수(留守)로 하고, 수어사를 겸하게 하면서,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자주 교체되지 않도록 하였다.

광주유수부의 행정시설로 현재 남한산성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임금이 남한산성 행차시 머무는 행궁(行宮)과 한달에 두 번 지방관이 임금에게 예를 올리는 객사건물 인화관(人和館), 백제 시조 온조를 위한 제사시설인 숭렬전(崇烈殿), 병자호란 당시 척화를 주장하며 목숨을 잃은 삼학사를 기리는 현절사(顯節祠), 남한산성 축성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는 청량당(淸涼堂) 등이 있다.

남한산성행궁은 남한산성의 수축을 시작한 이듬해인 1625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공사하여 산성 중심에 임금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을 조성하였다. 남한산성행궁의 1626년 창건 모습은 17세기 말에 그

린 『남한산성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행궁의 배치는 신하가 머무는 공간인 외조(外朝), 임금의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공간인 치조(治朝), 임금이 주로 머물며 생활하는 공간인 연조(燕朝)로 구분하여 규모는 도성의 궁궐보다 작지만 삼조(三朝)를 이루는 궁궐의 제도는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림 5-7. 재건 후 남한산성 행궁 전경 (출처: 남한산성 등재신청서)

숙종 때에는 행궁의 좌측과 우측에 좌전과 우실을 건립하여 종묘와 사직의 위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하게 된다. 종묘와 사직이 국가의 전통성을 의미하는 중요 시설임을 감안할 때 남한산성은 비상시 수도를 대신할 수 있는 부수도(副首都)라 인정받은 것이다. 정조 대에 행정체제와 군사체제가 일원화되면서 순조 대가 오면 행궁 좌측으로 좌승당이나 입장각 등 관아 시설들이 들어서 행궁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행궁의 건축양식은 행궁 내 건물이 가진 위계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 행궁 내 중심축이자 격이 가장 높은 내행전과 외행전의 경우 철저히 도성 궁궐의 내전과 같이 3칸 대청에 양옆 방을 설치하고 방 주위로 복도를 두는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다만, 도성의 궁궐과는 다르게 임금이 행행시 주로 거처하는 상궐 내행전을 이익공으로 장식하고, 하궐 외행전은 치조의 공간임에도 물익공으로 격을 낮추어 장식하였다. 또한 임금이 거처하는 중심축의 건물은 원형기둥을 사용하여 하늘을 뜻하였으며, 주변의 신하가 사용하는 건물은 방형기둥을 사용하여 땅을 의미하였다. 이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염두해 놓은 것이다.



그림 5-8. 20세기 초 행궁 상궐 내행전



그림 5-9. 20세기 초 하궐 외행전

(출처: 남한산성 등재신청서)

남한산성행궁 내에는 또 다른 역사의 유구가 담겨져 있다. 행궁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굴을 진행하던 중 행궁 하부지층에서 초대형 기와를 비롯하여 이 기와가 사용된 통일신라건물지 유구가 확인된 것이다. 초대형기와는 무게가 약 18kg으로 우리가 보는 일반기와가 4kg임을 감안하면 4배가 넘으며, 건물지 또한 크기가 약 53m 길이에 벽체의 두께만 2m에 달하여 성곽 안에 또 하나의 성을 축성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행궁 좌전 뒤로 능선 너머에 있는 송렬전은 온조대왕과 남한산성 축성시 책임자였던 완풍군 이서를 배향하는 곳이다. 조선 초에는 온조사당이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고, 인조 16년(1638) 온조묘(溫祚廟)라 하여 남한산성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당시 백제의 시조가 남한산성으로 오게 된 연유는 정조대왕이 남한산성에 행행한 1779년 영의정 김상철이 이르기를 ‘인조 대왕(仁祖大王)께서 꿈에 온조왕(溫祚王)이 와서 적병이 성에 오른다고 알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조(聖祖)께서 놀라 깨어 곧 명하여 정탐하게 하셨더니 과연 그 말과 같아서 장사(將士)를 시켜 격퇴하게 하셨는데 참획(斬獲)이 매우 많았으므로, 환도(還都)한 날에 특별히 명하여 온조묘(溫祚廟)를 세워 봄·가을로 제사하게 하셨으니, 일이 매우 영이(靈異)합니다.’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송렬전의 배치는 가장 위쪽에 본전으로 온조왕을 모신 송렬전이 있으며 아래쪽으로 이서 장군을 모신 부전과 제기와 제사용품을 보관하던 전사청 건물이 있다. 협문 아래쪽으로 교육장소인 강당과 정문인 솟을삼문이 있다.

특히 송렬전 내에는 산성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이서의 사당인 부전이 동향하여 별도로 있는데, 보통 임금의 사당 아래 좌우측으로는 공신들의 신위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조의 왕 아래 후

조의 신하 신위를 모시는 것은 예가 드물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인조대왕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 혼자 있기가 쓸쓸하니 명망이 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인조는 남한산성을 쌓은 공로자인 이서를 같이 모시게 했다고 한다. 송렬전에서는 매년 음력 9월5일에 제향을 올리고, 매월 삭망(朔望, 매월 1, 15일)에 참봉과 유사가 분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송렬전 제향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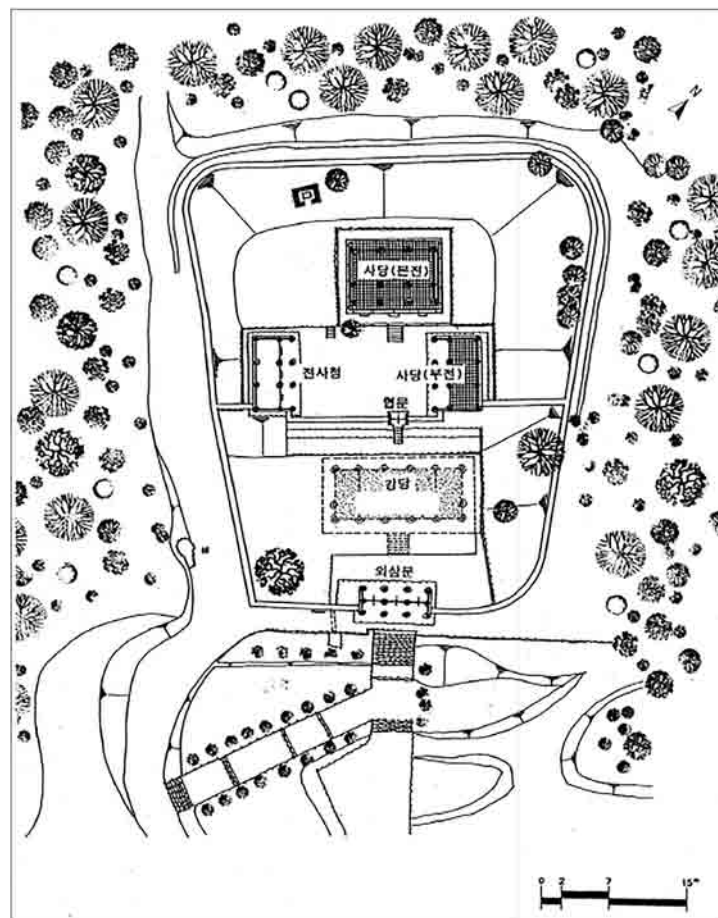


그림 5-10. 송렬전 배치도(출처: 남한산성 등재신청서)

현절사는 병자호란 당시 청에 항복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심양에 끌려가 충절을 지키다가 그 곳에서 처형당한 삼학사인 홍익한, 윤집, 오달제 선생의 의절을 널리 현양하기 위한 사우 건물이다. 이들은 남한산성이 청 태종의 12만 대군에 완전히 포위당하여 고립된 상황에서도 최후의 1인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들이다.

삼학사는 소현세자,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가 끝내 충절을 굽히지 않다가 인조 15년(1638)에 심양의 서문에서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충의와 절개에도 현절사는 청나라의 눈치와 영향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다가 숙종 14년(1688)에 유수 이세백의 주도로 '삼신사(三

臣祠)’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의리와 명분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조선 선비정신을 기려 숙종 19년(1693) 봄에 ‘현절사(顯節祠)’라는 이름의 사액을 받았다. 이후 숙종 25년(1699)에 척화파의 수장이었던 김상헌 대감과 항복 당일 자결을 시도했던 정온선생이 함께 배향되었으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47개의 서원 안에 들어 지금까지 매년 전례가 이어져 오고 있다.

수어장대 좌측에 위치한 청량당은 험난했던 남한산성 축성의 전설이 담겨있다. 1624년 남한산성 축성 당시 동남측은 이회장군이 맡고, 서북측은 벽암 각성대사가 맡아 진행되었는데 이회장군은 강직한 성품 탓에 임금 주변의 모함으로 사형을 당하지만 이후에 누명임이 밝혀져 이회장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라 전해온다.

그러나 역사기록에서는 그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 산성을 쌓을 때 처음에는 총융사 심기원이 맡았는데 상을 당하여 떠나게 되고, 완풍군 이서가 후임으로 와 각성대사과 응성대사로 하여금 구역을 나누어 축성하게 되는데 이 때 목사 문희성, 별장 이일원, 비장 이광춘 등이 감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정작 이회라는 이름은 볼 수 없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회라는 인물은 인조 12년(1634) 형조좌랑을 지낸 인물로 10년전 축성의 사역과는 시기적으로 맞지않다.

그럼에도 매년 정월 초가 되면 인근의 만신(무속인)들이 올라와 치성을 들이는데 이는 이회장군을 비롯하여 남편의 억울한 죽음으로 강물에 투신 자살한 송씨부인과 관계가 깊다. 또한 수어장대 우측으로 이회장군이 참수 당할 때 날아와 응시하였다던 매의 전설이 묻어 있는 매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서도 두 손을 바위에 얹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어 지금도 많은 이들이 청량산 지기를 얻으려 오는데 그만큼 남한산성은 굴곡진 역사처럼 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6. 남한산성의 성내 군사시설

남한산성은 수도방위를 위한 5군영 중 하나로 성내에는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는 많은 창고를 비롯하여 수어청과 관련한 많은 시설물 등이 있었다. 그러나 용도 폐기 이후 현존하는 군사시설로는 군사를 조련하는 연무관(演武館), 무기관련 시설인 침괘정(枕戈亭), 성내 물을 모아 놓은 연지에 세운 지수당(池水堂)과 장경사(長慶寺)나 망월사(望月寺)와 같이 남한산성 성곽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찰 등이 있다.

수어청 관련 군사시설로 대표적인 곳은 연무관이다. 연무관(演武館)은 중앙군인 수어영의 군사시설로서 남한산성 내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종각거리에서 동문으로 내려오다 보면 남한산초등학교 동측 구릉 위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고적도보」의 옛 사진을 보면 연무관 앞으로 넓은 연병장이 있

어 군사훈련 등을 위한 장소임을 알 수 있으나 지금은 주차장과 식당, 파출소 등으로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연무관은 이러한 연병장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정조대왕의 행행시 문무관의 시험을 관장하였고, 새로 개발된 매화법(埋火法)을 시험하기도 하였다.

연무관은 처음에는 ‘연무당(鍊武堂)’이라 부르던 것을 숙종 때에 수어사 김재호(金在好)가 개수할 때 ‘연병관(鍊兵館)’이란 현판을 하사하여 사용하였고, 정조 때에 ‘수어영(守禦營)’이라 개칭하였으나,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연무관(演武館)’이라 부르고 있다.



그림 5-11 연무관(좌), 침괘정(우) (출처: 남한산성 등재신청서)

연무관과 더불어 군사시설로는 성내 중앙 둔덕 위에 건립된 침괘정이 있다. 침괘정은 영조 27년(1751)에 유수 이기진이 ‘창을 베개로 삼는다’라는 뜻으로 편액하여 붙였는데 잘 때에도 항상 국방의 일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전해진다. 유수 김희순은 침괘정을 중수하면서 ‘적국과 외환이 항상 뜰에 있는 것처럼 여겨, 성곽의 하자를 보면 완전히 할 방법을 생각하고, 군량이 빈 것을 보면 채울 방법을 생각하고, 군대의 사기가 부진한 것을 보면 고무하고 격려하여 분발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유비무환 하라는 침괘의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남한지도』에는 침괘정의 위치에 군기(軍器)라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 침괘정은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제작소로 알려져 있으나 건물의 평면을 볼 때 창고나 공방보다는 각 실의 구분이 각 칸마다 2쪽의 여닫이 격자문으로 설치되었는데 여닫이문을 모두 열면 하나의 큰 방으로 변용되어 광주 유수의 집무처인 좌승당과 같이 수어사의 집무실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외에도 남한산성은 유사시 임시 보장처로 성 내에 먹을 수 있는 물이 풍족해야 한다. 기록에는 45개의 연못이 있었다고 하니 남한산성의 입지적 장점을 다시금 알 수 있다. 성내의 물은 남한산성의 지형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데 마을을 지나 동측 수구문으로 나가기 전 크게 연지를 구성하고 지수당이라 하였다.

고지도를 보면 당초 지수당은 방형의 연못에 ‘ㄷ’자형 연못이 2개 붙어 있어 합이 3개의 연못이 있었는데 을축년 대홍수 때 지형이 허물어져 현재는 2개의 연못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외에도 1624년 남한산성 건립 때부터 성벽의 축조와 유지관리를 하였던 승영사찰이 있다. 남한산성 내에는 원래 망월사와 옥정사만 있었으나 축성 당시 개원사, 장경사, 국청사, 한흥사, 천주사, 남단사, 동림사 등 7개의 사찰이 새로 들어섰다. 이들 사찰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성곽과 인접하여 중요한 요지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이중 지수당 인근에 있는 개원사가 남한산성 승영을 총괄하는 도총섭이 머무는 곳으로 초대 도총섭으로 승군을 이끈 사람은 벽암 각성(碧巖覺性)이다. 남한산성의 공역을 수행한 이후로 조선전기 억압되었던 불교가 호국의 굳은 의지와 전문적인 건축기술 등이 높이 평가되어 조선 정부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남한산성은 축성 이후에도 승군 일부가 그대로 거주하면서 맡은 구역의 수성(守城)과 수축(修築)을 하게 되는데 보충인력은 함경도와 평안도 등 북방의 외침에 대하여 자체병력이 더 시급한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승군들을 모집하여 일정기간 번을 서게 하는 의승립번(義僧立番)제도를 최초로 운영하였다. 이렇게 승군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 사찰 내에는 화약과 무기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누각(樓閣)에 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화방벽을 쌓고 보관하였다고 한다. 발굴 및 정비가 완료된 한흥사지에서도 이러한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남한산성에 운영되는 사찰은 장경사, 망월사, 개원사, 국청사가 있는데 이 중 장경사가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남한산성행궁의 삼조배치와 좌묘우사는 궁궐배치의 예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주례고공기 등 중국의 도성배치 원칙을 준용한 것으로 이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 중 2번인 문화의 교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7. 맺는 말

17세기 초 한반도의 정세는 요란했다. 이 시기는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진출 야욕으로 발발된 1592년 임진왜란은 조선을 황폐화 시켰고, 17세기 초에는 전쟁 이후 국토를 재정비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는 시기이다.

임진왜란은 조선 초기부터 운영되었던 거점 방어전략의 한계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왕이 도성민을 두고 파천하는 피해 또한 막대하여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계가 다시 만들어지게 된다.

마침 이괄의 난으로 왕이 공주까지 파천하게 되고, 이후 도성 주변으로 군왕의 안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장처가 물색되던 터에 이전부터 입에 오르내리던 남한산성이 채택된다. 남한산성은 당초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산성이지만 통일신라시대 쌓은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어 이를 따라 1624년 다시 쌓고, 이듬해 군왕이 머물 수 있는 행궁도 건립하였다.

그로부터 10년 후 한반도 북측에서 세력을 키운 후금이 청으로 개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의 본토로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친정한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된다. 47일간 항전 끝에 강화도의 함락 등으로 남한산성의 문을 열고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지만 하늘이 내려준 남한산성의 지세를 여감없이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후 남한산성은 ‘성곽을 고치지 않는다’는 중국과의 약조에도 불구하고 방위전략상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가 되었다.

남한산성은 1711년 행궁의 좌측과 우측에 한양도성의 종묘와 사직의 신평(神牌)을 보관할 수 있는 좌전과 우실이라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도성의 상징인 좌묘우사를 전쟁시 남한산성행궁 좌우측에 봉안하는 것은 도성의 전통을 보장처에도 계승한 것이면서 소위 ‘배도(陪都)’의 공간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남한산성은 가치기준 2번에 해당하는 유교적 전통이 반영된 교류의 흔적과 가치기준 4번에 해당하는 축성술의 변화단계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번 기준의 내용은 남한산성은 국제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무기 발달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탁월한 증거이자 조선의 자주·독립의 수호를 위해 유사시 임시수도로 계획적으로 축조된 유일한 산성도시이고, 4번 기준의 내용은 남한산성은 험한 지형을 활용하여 성곽과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무기 발달체계에 따른 성곽 축조술의 발달 단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VI

실습:
세계유산 해석·설명하기

실습: 세계유산 해석·설명하기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은 세계유산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알리기 위한 작업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의 전 과정에 관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유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등재 후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기 위하여 유산과 주변의 변화가 유산이 지닌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 등이 모두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악한 유산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속성을 등재기술문, 도면, 지도, 사진 등의 방식으로 정리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유산의 변화관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여러 공동체의 의견을 듣는 것, 유산의 활용과정에서 안내서나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 세계유산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활용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홍보하는 것 등을 설명이라 할 수 있다(WHIPIC, 2022).

단계	가치 규명 Value Identification	가치 유지 Value Management	가치 확산 Value Dissemination
정의	가치평가 및 이해	가치 유지를 위한 물리적 변화관리	가치 창출
주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록화(범위, 지구 등) • 조사 및 연구 • 발굴 • 인정 •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 보존, 관리 • 보존처리, 수리, 복원 • 현상변경(영향검토) • 매매 • 반출반입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 공개, 전시 • 교육 • 유산 해설 • 향유
세계유산 과정에서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발굴 • 잠정목록 등재 • 등재신청서 작성 • 세계유산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보고 및 정기점검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유산영향평가 • 주기적 점검 및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 • 전시, 홍보 기획 • 세계유산 전문 교육 • 세계유산 통합해설

그림 6-1. 세계유산 관리에 있어 해석과 설명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사례로 속성 추출과 속성 기반 홍보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남한산성 등재신청서와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남한산성의 속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과정을 통해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내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공유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세계유산 가치 이외의 다른 가치를 고려하고, 한 유산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조화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프로그램 기획

- 세계유산의 고유한 가치·속성 연계
- 등재기술문, 속성추출표, 활용프로그램 예시 활용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기획의도	
기간	
장소	
참여대상	
세부내용	

1. 남한산성 등재기술문

요약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산지에 축성된 남한산성(南漢山城)은 조선시대(1392~1910)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의 초기 유적에는 7세기의 것들도 있지만 이후 수차례 축성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17세기 초, 중국 만주족이 건설한 청(淸)나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여러 차례 개축되었다. 남한산성은 승군(僧軍)이 동원되어 축성되었으며 이들이 산성을 지켰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전해 온 성제(城制)의 영향과 서구의 화기(火器) 도입에 따라 변화된 축성 기술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당시의 방어적 군사 공학 개념의 총체를 구현한 성채이다. 오랜 세월 동안 지방의 도성이었으면서 아직도 대를 이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남한산성의 성곽 안쪽에는 당시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군사·민간·종교 시설 건축물의 증거가 남아 있다. 남한산성은 한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등재기준

- 기준 (ii) : 남한산성의 산성 체계는 17세기에 극동지역에서 발달한 방어적 군사 공학 기술의 총체를 구현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한국의 성제를 재검토했던 결과이자 서구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화기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한국의 산성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으며 축성된 이후에는 한국의 산성 건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기준 (iv) : 남한산성은 요새화된 도시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17세기 조선시대에 비상시 임시 수도의 기능을 하도록 계획·건설된 남한산성은 이전부터 존경받아온 전통인 승군에 의해 축성되었으며 산성의 방어 역시 승군이 담당하였다.

완전성

남한산성의 중요성·다양성 그리고 범위는 문화유산 구성의 완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남한산성은 분명하게 정의된 역사적 역할과 함께 산성의 구조, 옛 산성의 기능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화유산의 특성을 충분하게 지니고 있다. 이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와 지식, 즉 남한산성이라는 산성이 지닌 방어적 군사 공학이라는 개념의 도출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역사와 지식은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민속적·네오애니미즘(neo-animism, 심령주의)적 성격을 띤 오늘날의 여러 활동이나 지방 분권적 성격의 활동은 유산의 완전성이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진정성

유산을 구성하는 유형적 요소인 산성을 보수 및 개축할 때에는 산성의 형태·구조·자재 등에 있어 특별히 정밀한 과학적 지침을 따랐다. 이러한 활동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새롭게 재축(再築)되고 있다. 이러한 재축 과정은 역사적으로 전해져오는 남한산성의 건축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유산의 요소 중에서 특히 목재를 주로 하여 건축된 사찰이나 건축물 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보호는 이미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과학적으로 인정된 진정성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나치게 체계적으로 계획된 복원 정책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 덕분에 오래 전에 소실되었던 건축물들을 재축할 수 있었는데, 특히 19세기 일제강점기 당시 전소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옛 터에는 당시의 모습을 지닌 행궁(行宮)을 복원할 수 있었다.

보존 및 관리체계

남한산성 성곽 및 기념물을 포괄하는 전체 권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늘날 총 218점에 달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 요소 각각은 유적 및 사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지방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보호되고 있다. 문화적 양상불에 대한 기술 및 관광 관리는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Namhansanseong Culture and Tourism Initiatives, NCTI)에서 총괄하고 있다. 문화재 자체와 완충지역은 경기도 도립공원(NPPO)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도립공원 측은 식생·녹지·기반시설(산책로·공원 지역 등) 등을 관리·관할한다.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 그리고 해당 지방 및 시도 지자체에서는 유산 및 완충지역의 보호·보존·관광 관리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시민 자원 봉사 단체가 유산의 관리 및 증진에 참여하고 있다. 관리계획에는 부문별 계획, 특히 본 유산의 보존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2. 남한산성 속성추출표(일부 발췌)

	(ii)	(iv)
등재기준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남한산성의 산성 체계는 17세기에 극동지역에서 발달한 방어적 군사 공학 기술의 총체를 구현 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한국의 성제를 재검토한 결과이자 서구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화기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한국의 산성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으며 축성된 이후에는 한국의 산성 건설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남한산성은 요새화된 도시 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17세기 조선시대에 비상시 임시 수도의 기능 을 하도록 계획·건설된 남한산성은 이전부터 존경받아온 전통인 승군에 의해 축성되었으며 산성의 방어 역시 승군이 담당하였다.
가치	건축공학적 가치	도시행정적 가치
	남한산성의 형태와 구축기술은 17세기 군사 및 건축공학적 가치를 보여준다. 전란을 겪으며 축적된 건축공학적 발전과 주변국 기술의 도입을 통해 기존 성곽요새의 기능을 끌어올린 성곽 건축을 보여준다. 남한산성에 적용된 건축시설 및 적용된 공학기술을 통해 주변 지리에 맞춘 최적의 군사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수도이자 행궁으로서 남한산성은 요새로서의 군사기능을 수행했을뿐만 아니라, 도시행정적 기능 또한 수행한 복합적 성격의 유산이다.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은 공간이며, 임시수도로서 역할을 위해 도성의 도시행정 기능을 재구성해 놓은 장소로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시간과 역사적 사건에 따라 변화한 성곽도시의 모습을 살필 수 있음

가치	건축공학적 가치	도시행정적 가치
속성	형태와 디자인 산성 - 포곡식 형태 (조선시대 지어진 것들 중 유일) - 4대문(16개의 암문) - 직교벽, 외벽, 방어전초기지 등	행궁(남한산성 행궁) - 상궐, 하궐, 한남루, 인화관, 송렬전 읍치 - 관찰사 - 수어영 - 6개의 누정 도시 - 십자형 도로(두 개의 큰 축) - 전시 주요 대수층 자원이었던 지수당 - 노송림
	재료, 물질	돌, 벽돌, 편마암, 다듬은 돌, 나무, 두꺼운 모르타르
	용도, 기능	산성 수도방어 광주(1624-1917)의 지방 수도 (읍치) 거주기능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의 경계 분할
	전통, 기법, 관리체계	여장 구축 읍치로서의 행정 기능 수행 중국과 일본의 영향과 서양 화기의 도입에 따른 축성술의 변화를 기반으로 함
	위치, 주변환경	구릉지에 위치
	언어, 무형유산	최초의 '임시(비상) 수도' 개념
	정신, 감정	한국의 자주, 독립의 상징 외세 저항 종교적, 영적 측면(불교, 애국심)
	다른 내외부 요소	승군에 의해 축성 및 방어됨

3.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프로그램 예시

구분	교육 및 체험	전시 및 공연	협력 (지역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예시연 ● 역사아카데미 ● 다도체험 ● 왕실복식체험 ● 국궁 교육 ● 성곽 투어 ● 연극 등 역사인물체험 ● 숲, 자연환경 생태체험 ● 명상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도, 옛사진, 기사 전시 ● 전통무술 무용극 ● 농악, 국악공연 ● 수어청 군사무예 시연 ● 송렬전 상설참배 ● 줄타기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사 연수 ●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 마을신문 제작 ● 솔바람 책방 설치 ● 영어수업 등 주민역량교육

4. 2022년 문화재청 세계유산 활용사업 가이드북



그림 6-2.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21선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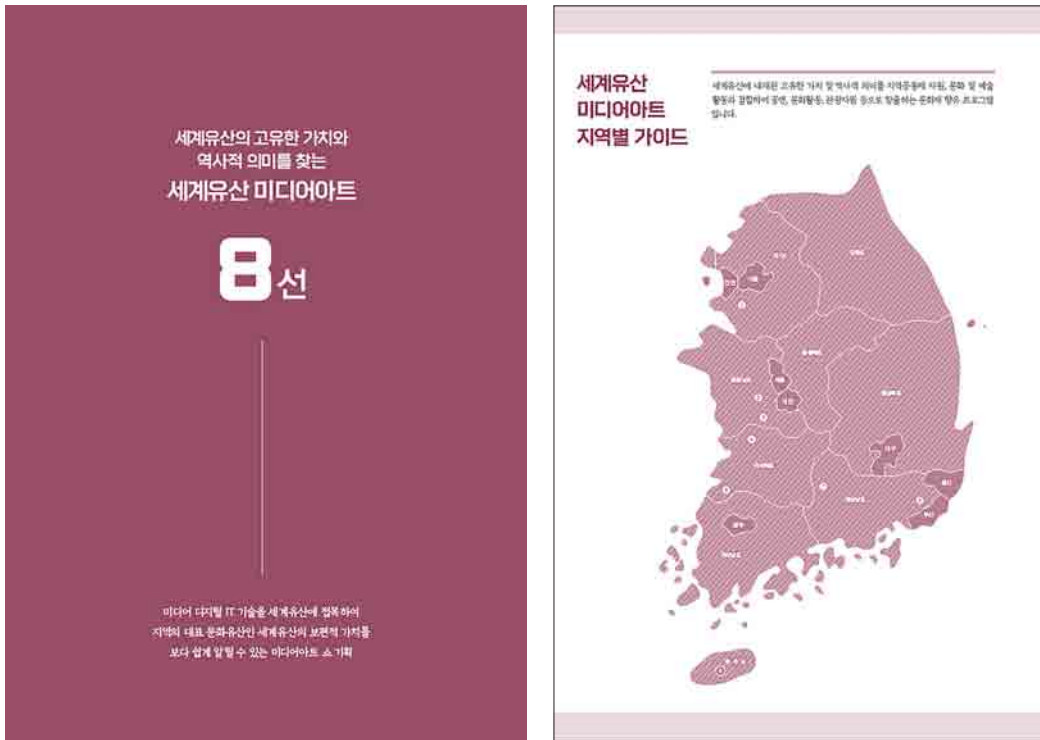


그림 6-3.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8선 가이드북

부록

● 국내 15개 세계유산 등재기술문¹

본 자료는 국내 15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SOUV)으로, 이 문서들은 세계유산이 왜 세계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탁월하게 여겨졌는지 설명하는 짧은 서술문이다. 이 기술문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수립이나 세계유산 방문객에게 설명을 할 때 유산의 어떤 측면을 보호하고 알려야 할지를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분석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해석 작업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1. 해인사 장경판전(1995)

요약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는 1237년에서 1248년 사이에 8만 개의 목판에 새겨진 가장 완전한 불교 경전인 팔만대장경의 본거지이다. 장경판전의 건물은 1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도 추앙받는 목판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졌다. 팔만대장경의 가장 오래된 보관소로서, 그들은 이 목판들을 보존하는 데 사용된 보존 기술의 발명과 실행에 대한 놀라운 숙달을 보여준다.

등재기준

- 기준 (iv) :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특수 유형의 건축물이 오래됐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며, 15세기에 불교 경전(팔만대장경)을 인쇄하기 위해 사용된 80,000개의 목판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된 놀라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도 유명하다.
- 기준 (vi) : 장경판전과 독특한 소장품인 13세기 팔만대장경판은 예술성과 뛰어난 판각 기술로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불교 교리문답집으로서 전 세계 불교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는다.

완전성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판 등 해인사 전체가 유산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장경판전은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지만, 목판과 목판을 보관하는 선반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자연 환기와 온도 및 습도 조절을 제공하는 장경판전 설계에 사용된 놀라운 정도로 성공적인 보존법은 설치류와 곤충의 침입으로부터 500년 이상 목판을 보호할 수 있었다. 온도 및 습도 수준은 계속해서 엄격하게 모니터링되고 제어되어야 한다. 목판과 장경판전은 목재 구조이며 화재 손상과 도난에 취약하다.

1. 이 장의 자료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whc.unesco.org/en/list)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제작한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eritage.unesco.or.kr)에서 발췌하여 재가공하였다.

진정성

판전에는 현재 8만여 개의 고려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으며 창건 당시의 건물 원형과 기능이 그대로 유지, 보존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건물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모두 유지관리 차원의 부분적 수리였다. 건물의 전반적인 배치에서 건축적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변형이나 파손 없이 창건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존 및 관리체계

해인사 장경판과 장경판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해인사 전역과 가야산 일대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 행위는 사전 심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장경판전과 대장경판 보존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고 보수와 유지 관리 및 주변 지역 현상 변경과 관련해 심의와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경상남도는 해인사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존 관리 및 정비 사업은 합천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합천군은 해인사의 보존 관리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장에서는 해인사가 대장경판의 보존 관리를 책임지며, 홈페이지를 통해 대장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3, 4년 주기로 전문가의 정밀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의 보존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유산의 보존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보존 관리와 함께 기록유산으로서의 장경판의 가치에 주목해 이루어지며, 문화재 수리는 해당 분야별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담당한다.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의 보존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목조건물과 경판의 화재 위험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장경판전 감시인을 배치해 24시간 동안 판전 등 사찰 경내를 경비하고, 낙뢰 방지를 위한 피뢰침을 설치하는 한편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사찰의 자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형 소방 펌프차를 배치하였다. 현재 판전 내부는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해 관람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2. 종묘(1995)

요약

종묘는 지금까지 보존된 유교 왕실 사당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것이다. 조선 왕조(1392-1910)의 선조들이 봉헌된 이 사당은 16세기부터 현재의 형태로 존재해 왔으며 이전 왕실 구성원들의 가르침을 담은 현판을 보관하고 있다. 음악, 노래, 춤을 연결하는 의식은 여전히 그곳에서 열리며,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영속시킨다.

등재기준

· 기준 (iv) : 종묘는 16세기 이래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유교 왕실의 조상신앙의 대표적인 예이며, 전통적인 의식의 형태와 형태에서 무형 문화 유산의 중요한 요소가 지속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화된다.

안전성

종묘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주요 제향 공간과 건축물, 그리고 제향을 지원하는 부속 공간과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모든 건물과 시설물은 유산의 경계 내에 포함되었고 모든 구성요소는 완충 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종묘의 건축물들은 대체로 상태가 좋으며, 목조 건축물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화재이다. 유산의 완충구역 너머에는 상당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종묘 내 유산 구역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묘제례 및 제례악은 매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음악, 춤, 의식의 보존은 국립국악원과 종묘제례보존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진정성

종묘는 유형적 원형과 무형적 행례 절차에 있어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종묘의 공간 배치와 건축은 조선 시대 축조 당시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제의와 음악, 춤 또한 잘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17세기에 중건된 건물은 선왕의 신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두 차례 증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목조건물의 특성상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보수공사 또한 관련 문헌과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 법식에 맞는 재료와 기술을 이용해 공인된 장인들이 진행한다.

보존 및 관리체계

종묘의 전 영역과 정전, 영녕전 등 주요 건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지정 문화재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은 문화재보호법과 종로구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구역 내의 모든 건설 행위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되어 있다.

종묘제례 및 제례악 또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종묘제례보존회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주요 수행단체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제례 보존을 위한 보조금과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청은 종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종묘 보존을 위한 재원을 배분할 책임이 있다. 또한 25명가량의 직원들이 배치된 종묘관리소는 현장에서 직접 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3, 4년 주기로 전문가들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도시교통과, 문화재과가 협력하여 종묘 주변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기본 경관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종묘의 문화재 수리는 해당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진행한다. 목조건축물의 가장 큰 위협요소는 화재 위험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2009년부터 ‘5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화재를 비롯한 문화재 훼손과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일반인은 가이드 투어로만 문화재 구역에 입장할 수 있으며, 건물 내부 출입은 금지되어 있다.

3. 석굴암, 불국사(1995)

요약

석굴암(石窟庵)과 불국사(佛國寺)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이다. 석굴암은 불상을 모신 석굴이며, 불국사는 사찰 건축물이다. 두 유산은 모두 경주시 동남쪽의 토함산(吐含山)에 있으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 두 유산은 8세기 후반에 같은 인물이 계획해 조영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었다. 석굴암은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로 원형의 주실 중앙에 본존불(本尊佛)을 안치하고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나한상, 신장상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불국사는 인공적으로 쌓은 석조 기단 위에 지은 목조건축물로 고대 불교 건축의 정수를 보여 준다. 특히 석굴암 조각과 불국사의 석조 기단 및 두 개의 석탑은 동북아시아 고대 불교예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등재기준

- 기준 (i) :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인들의 창조적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로 조영한 불교 건축과 조각으로 경주 토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한국 고대 불교예술의 정수를 보여 주는 걸작이다.
- 기준 (iv) : 석굴암과 불국사는 8세기 전후의 통일신라 시대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건축과 조각으로, 석굴암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석굴과 불상 조각에 나타난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 불국사는 석조 기단과 목조건축이 잘 조화된 고대 한국 사찰 건축의 특출한 예로서 그 가치가 두드러진다.

완전성

석굴암은 부처의 깨달음을 묘사하고 있으며 불국사는 지상세계에서 불교의 유토피아를 상징한다. 두 유산은 물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두 유산지역의 모든 주요 구성 요소는 유산의 경계 내에 포함되어 있다.

석굴암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곰팡이, 이끼 등의 성장을 촉진하는 습기와 결로이다. 또한 기후로 인한 손상은 또 다른 위협이다. 1913년과 1915년 사이에 콘크리트 돔의 건설로 습도가 높아지고 수분 침투를 초래했다. 두 번째 콘크리트 돔은 1960년대에 기존 돔 위에 설치되어 그 사이에 1.2m의 공기 공간을 만들고, 공기 흐름을 조절하고, 곰팡이의 형성을 줄이고, 더 이상의 기후 손상을 방지했다. 또한 나무로 된 전실이 추가되었고 동굴 내부는 방문객들과 온도의 변화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 벽이 세워졌다.

1913-15년 동굴의 원래 구조에 대한 변경과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온도 및 습도 제어, 수분 침투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불국사 석조물의 주요 위협 요소는 산성비, 오염, 동해에서 발원한 짠 안개, 석조물 표면의 이끼 등이다. 이러한 위협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연구된다. 화재는 불국사 목조건축물의 완전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며, 현장의 예방과 감시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진정성

석굴암 본존불과 그 주위 대부분의 석조 조각과 건축의 형태는 8세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높다. 불국사 경내의 석조 유산은 부분적 보수 과정을 거쳤을 뿐 신라 시대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목조 건축물들은 16세기부터 보수와 복원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든 복원 사업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전통 재료와 기술이 사용되었다.

보존 및 관리체계

석굴암은 국보로 지정되었고 불국사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유산의 기존 양식을 변경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다. 구성유산은 경주국립공원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신축에 제한이 있다. 유산 경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도 조성돼 모든 공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청은 유산 및 완충구역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보존을 위한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경주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직접 책임지고 있으며, 불국사는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기적인 일상 모니터링과 심층 전문 모니터링을 3~4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보존 작업은 국가 인증 시험에 합격한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이 개별적인 전문 분야에서 수행한다. 진동으로 인해 위험한 석굴암 내부 환풍기는 철거되었고, 방문객 수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 불국사 내에서는 산성비와 오염, 동해에서 발원한 짠 안개, 돌 표면의 이끼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사찰의 목조건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국사에는 전반적인 화재 위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사찰 내 여러 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

4. 창덕궁(1997)

요약

창덕궁(昌德宮)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 시대의 궁궐이다. 건축과 조경이 잘 조화된 종합 환경디자인 사례이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공간 분위기를 읽게 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15세기 초에 정궁인 경복궁 동쪽에 이궁으로 조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애초의 건립 목적이나 도성 내에 자리한 입지도 경복궁과 차이가 있었다.

창덕궁이 자리한 곳은 언덕 지형으로 평탄한 곳이 많지 않다.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이러한 불규칙한 지형지세를 이용해 궁궐 건물을 경내 남쪽에 배치하고, 북쪽 넓은 구릉에는 비원이라고도 불리는 후원을 조성하였다. 자연 지형을 이용해 건물을 세운 까닭에 궁궐 건축의 전형적인 격식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뛰어난 조화를 이루는 특색을 지녔다.

창덕궁은 경복궁의 이궁으로 조선 전기의 약 200년 동안 왕의 통치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나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고, 소실된 도성 내 궁궐 중 가장 먼저 중건되며 이후 약 250년 동안 조선왕조의 정궁 역할을 했다. 건축사에 있어 조선 시대 궁궐의 한 전형을 보여 주며, 후원의 조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왕실 정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등재기준

- 기준 (ii) : 창덕궁은 유교 예제에 입각한 궁궐 건축의 기본 양식을 따르면서도 건물의 배치나 진입 방식에서는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준다. 궁궐의 정문인 돈화문은 서남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으며, 정문의 진입로에서 직각으로 두 차례 방향을 틀어야 정전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형지세에 따라 조성된 이러한 진입로의 배치는 남북 방향의 일직선 중심축을 따르는 경복궁이나 중국의 궁궐과는 차이가 있다. 건물과 주변 환경이 잘 조화된 창덕궁의 궁궐 배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궁궐 건축양식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창의성을 보여 준다.
- 기준 (iii) : 창덕궁은 전통 풍수지리 사상과 조선왕조가 정치적 이념으로 삼은 유교가 적절히 조화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전통 풍수에 입각하여 선정된 입지와 유교 이념에 따라 상징적, 기능적으로 배치된 창덕궁의 건물들은 조선 시대 고유의 독특한 유교적 세계관을 보여 준다.
- 기준 (iv) : 창덕궁은 원래의 자연 지형을 존중하기 위해 궁궐 건축의 전통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창조적 변형을 가해서 지어졌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자연적인 산세와 지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정형성을 벗어나 자유롭게 건물을 배치해 건축과 조경을 하나의 환경적 전체로 통일시킨 훌륭한 사례이다.

완전성

창덕궁의 공간 구성과 건축물의 배치, 원림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우리나라 궁궐건축의 형식과 유교 예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 창덕궁은 조정의 관료들이 왕을 보좌하며 업무를 본 외조, 왕이 신하를 만나며 국정을 수행한 치조, 왕과 가족들이 취침하는 침조, 왕이 휴식을 취하는 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건물과 조경, 자연지형이 창덕궁 경내에 잘 어우러져 있으며 궁 전체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건물의 물리적 완전성에 대한 주요 위협은 화재이다. 목조 건축물들은 조선 역사 속에서 때때로 화재에 의해 연속적으로 파괴되었다.

진정성

창덕궁 건물들은 화재로 파괴되었고, 계속해서 재건축 되었으며 이후 수 세기 동안 유산구역에 일부 건축물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아시아의 표준적인 철학과 관행에 비추어 판단했을 때, 이 유산은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창덕궁의 건물과 후원의 원림은 대체로 조선 후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 지형과 경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변화를 되돌리기 위한 작업이 착수되었다. 이 작업은 전통적인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역사적 증거와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보존 및 관리체계

창덕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궁궐 전 영역과 주요 건물 및 식재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과 종로구 조례에 의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구역 내 모든 건설 행위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창덕궁 후원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창덕궁의 보존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 창덕궁의 건물 및 시설물 보수 정비, 발굴, 예산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40여명의 직원들이 배치된 창덕궁관리소는 현장에서 직접 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3, 4년 주기로 전문가들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도시교통과, 문화재과가 협력하여 창덕궁 주변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기본 경관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창덕궁의 보존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창덕궁의 문화재 수리는 해당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진행한다. 창덕궁 보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목조건축물의 화재 위험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2009년부터 ‘5대궁 및 종묘 종합경비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화재를 비롯한 문화재 훼손과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5. 화성(1997)

요약

화성(華城)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조선 시대의 성곽이다. 정조(正祖)가 자신의 부친인 장헌세자의 묘를 옮기면서 읍치소를 이전하고 주민을 이주시킬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방어 목적으로 조성하였다. 1794년 2월에 착공하여 2년 만에 걸친 공사 후 완공되었다. 성곽 전체 길이는 5.74km이며, 높이 4~6m의 성벽이 130ha의 면적을 에워싸고 있다.

처음부터 계획되어 신축된 성곽이라는 점, 거주지로서의 읍성과 방어용 산성을 합하여 하나의 성곽도시로 만들었다는 점, 전통적인 축성 기법에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그 이전의 우리나라 성곽에 흔치 않았던 다양한 방어용 시설이 많이 첨가되었다는 점, 주변 지형에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로 조성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1801년에 간행된 화성 준공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통해 공사의 자세한 전말을 알 수 있다.

등재기준

- 기준 (ii) : 화성은 그 이전 시대에 조성된 우리나라 성곽과 구별되는 새로운 양식의 성곽이다. 화성은 기존 성곽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포루, 공심돈 등 새로운 방어 시설을 도입하고 이를 우리의 군사적 환경과 지형에 맞게 설치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발달한 실학사상은 화성의 축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실학자들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유럽의 성곽을 면밀히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독특한 성곽의 양식을 결정하였다. 화성 축조에 사용된 새로운 장비와 재료의 발달은 동서양 과학기술의 교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 기준 (iii) : 화성은 분지로 이루어진 터를 둘러싸고 산마루에 축조된 기존의 우리나라 성곽과는 달리 평탄하고 넓은 땅에 조성되었다. 전통적인 성곽 축조 기법을 전승하면서 군사, 행정,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화성은 18세기 조선 사회의 상업적 번영과 급속한 사회 변화, 기술 발달을 보여 주는 새로운 양식의 성곽이다.

완전성

성곽의 중요 부분인 성벽, 4대문 그리고 각종 방어용 시설이 모두 잘 보존되어 있어 군사시설이자 주거지역으로서의 화성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중요 건물을 포함해 유산의 모든 요소가 유산의 경계 안에 있다. 수원천은 화홍문 홍수문에서 시내 중심부로 계속 흐르고 있으며 정문을 연결하는 도로는 여전히 도로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화성은 48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네 개의 문, 수문들, 관측탑, 지휘소, 다연장 화살 발사탑, 화기 보루, 각진 탑, 비밀 문, 봉수 탑, 보루와 벙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7개가 침수와 전쟁으로 유실됐다. 구불구불한 성벽은 도시의 교통망을 수용하기 위해 9곳에 뚫렸다.

성곽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그 보존과 유지에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화성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건축물의 목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화재이다. 또 다른 위험은 잡초인데, 이것은 성벽과 다른 특징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급속한 도시화는 4개의 주요 관문이 인근 거리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스모그와 진동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산 보존상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해야 한다.

진정성

화성은 축조 당시의 특성이 잘 남아있어 높은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의 피해를 포함해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은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베니스 헌장과 나라 문서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인 기술과 재료를 사용해 복원하였다.

보존 및 관리체계

화성의 전 영역과 팔달문, 화서문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지정 문화재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은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 행위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는 화성 및 부대시설의 관람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화성 보존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고 보수와 유지 관리 및 주변 지역의 현상 변경에 관한 심의와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수원시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성곽 안팎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문화재 현상 변경 처리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30명가량의 직원들이 배치된 수원시 화성사업소가 현장에서 유산을 관리하며 유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3, 4년 주기로 전문가의 정밀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수원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수원화성운영재단’은 유산 관련 시설물의 위탁 관리, 관광 활성화, 수익 사업 등을 담당한다. 화성의 보존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화성의 문화재수리는 해당 분야별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담당한다. 화성의 보존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목조건축물에 대한 화재 위험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CCTV와 무인 경비 장치를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 체계를 작동시키고 있다. 잡초 역시 화성의 성벽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6.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2000)

요약

한국의 고인돌은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만들어진 선사시대 거석기념물로 무덤의 일종이며, 고창, 화순, 강화 세 지역에 나뉘어 분포하고 있다. 한 지역에 수백 기 이상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형식의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 세 지역의 고인돌은 고인돌 문화의 형성 과정과 함께 한국 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 및 동북아시아 선사시대의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등재기준

· 기준 (iii) :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기원전 1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례 및 제례를 위한 거석문화 유산이다. 이 세 지역의 고인돌은 세계의 다른 어떤 유적보다 선사시대의 기술과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완전성

세 지역 모두에 수백 기 이상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분포한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고인돌을 통해 거석문화 발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채석장의 존재는 우리나라 고인돌의 기원과 성격을 비롯해 고인돌 변천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유산의 완전성에도 기여한다.

붕괴되거나 흩어진 고인돌은 복원할 계획으로, 이 작업은 고인돌의 원형과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상세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고인돌의 가장 큰 위협은 화재와 주변 환경으로 인한 손상이다.

진정성

고인돌은 형태, 재료, 위치의 측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고인돌은 축조 당시부터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변형 과정의 결과이다. 비록 몇몇은 농부들에 의해 해체되었지만, 그 돌들은 온전하게 남아있고 고인돌의 원래 위치와 형태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보존 및 관리체계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은 연속유산이며, 세 지역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 행위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고인돌 유적의 보존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고 보수와 유지 관리 및 주변 지역 현상 변경과 관련된 심의와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유산이 속한 각 지자체는 구체적인 보전관리 및 정비 사업을 담당하며, 현장에는 유산 보존 관리를 담당하는 상시 관리소가 있다. 고창 고인돌박물관과 화순 고인돌 발굴지 보호각, 강화역사박물관은 각 지역 방문객들에게 고인돌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3, 4년 주기로 전문가의 정밀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고인돌의 보존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고인돌 보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화재와 주변 환경의 훼손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잡목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삭토나 수목의 뿌리로 인해 도괴된 고인돌에 대해서는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 정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요약

경주역사유적지구에는 조각, 탑, 사지, 궁궐지, 왕릉, 산성을 비롯해 신라 시대의 여러 뛰어난 불교 유적과 생활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7세기부터 10세기 사이의 유적이 많으며 이들 유적을 통해 신라 고유의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 신라의 1,0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신라인의 생활 문화와 예술 감각을 잘 보여 주는 곳이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궁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 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황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등재기준

- 기준 (ii) : 경주역사유적지구에는 불교건축 및 생활 문화와 관련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다수 분포해 있다.
- 기준 (iii) : 신라 왕실의 역사는 1,000년에 이르며, 남산을 비롯해 수도 경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은 신라 문화의 탁월함을 보여 준다.

완전성

연속유산으로서, 각각의 지역들은 신라의 수도로서 경주의 가치를 함께 전달한다. 전체적으로 유산 지역은 신라 왕조의 도시 배치, 사회 구조, 생활 방식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1,000년 역사의 증거가 된다. 수도의 가치와 원래 설정을 묘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가 속성에 포함된다. 남산과 산성지구를 둘러싼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개발의 위협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역사적인 지역의 나머지 부분은 도심에 위치한다. 역사적 지역의 물리적, 시각적 완전성을 방해할 수 있는 건물 높이, 설계, 개발로 인한 침해, 경주 내 증가하는 차량 수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월성지구를 관통하는 동해남부선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진정성

경주역사유적지구의 5개 지구는 각기 다른 종류의 유산이 원래의 위치에 남아있어 진정성이 높으며, 건축, 조각, 탑, 왕릉, 산성은 모두 그 원형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지 또는 궁궐지의 경우에는 그 터만이 남아 있으며 건물의 원래 배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존 및 관리체계

경주역사유적지구는 남산, 월성, 대릉원, 황룡사, 명활산 지구 등 5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산 전역과 지역 안의 많은 문화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지정 문화재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 행위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매장 문화재가 풍부한 지역 특성상, 경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토목, 건축 행위에는 문화재 영향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경주역사유적지구 보존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고 보수 및 유지 관리, 주변 지역 현상 변경과 관련된 심의와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경주시는 구체적인 보존 관리 및 정비 사업을 담당하며, 남산의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리한다.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3, 4년 주기로 전문가의 정밀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보존 관리 상태는 매우 좋다. 유산의 문화재 수리는 해당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담당한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지정된 유산 주변의 토지를 꾸준히 매입해 관련 유산을 보다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 유적 지구 사이의 연결성을 높여 왔다. 등재 당시 동해남부선 철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권장되었으며, 철로는 2014년에 철거될 예정이다.

8.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요약

총 면적 18,846ha 규모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은 천장과 바닥이 다양한 색의 탄산염 동굴생성물로 이루어지고 어두운 용암 벽으로 둘러싸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손꼽히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바다에서 솟아올라 극적인 장관을 연출하는 요새 모양의 성산일출봉 응회구(tuff cone), 그리고 폭포와 다양한 모양의 암석, 물이 고인 분화구가 있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의 세 구역으로 구성된다.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유산은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 과정 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 준다.

등재기준

- 기준 (vii) : 전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동굴계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는 이런 종류의 용암 동굴을 이미 본 적 있는 사람조차 빼어난 시각적 효과에 감탄한다. 동굴 천장과 바닥에는 형형색색의 탄산염 생성물이 장식되어 있으며, 탄산염 침전물은 어두운 용암 벽에 벽화를 그린 것처럼 군데군데 덮여 있어 독특한 볼거리를 연출한다. 요새 형태의 성산일출봉 응회암은 벽면이 바다 밖으로 솟아나와 경관이 극적이다. 또한 계절에 따라 색과 모습이 달라지는 한라산은 폭포, 갖가지 모양으로 형성된 암석, 그리고 주상 절리(柱狀節理) 절벽, 분화구에 호수가 있는 우뚝 솟은 정상 등이 경관과 미적 매력을 더해 준다.
- 기준 (viii) : 제주도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움직이지 않는 대륙 지각판 위 열점(熱點, hot spot)에 생성된 대규모 순상 화산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용암 동굴계 중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동굴로 동굴생성물(speleothem)이 다양한 형태로 장관을 이루며 늘어서 있다. 이는 다른 용암 동굴 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종유석같이 부수적으로 생겨난 탄산염 동굴생성물이다. 성산일출봉 응회암은 구조적인 특성과 퇴적 특성이 드러나는 이례적인 곳으로서 얕은 바다에서 수증 폭발한 서치형(Surtseyan-type) 화산 폭발 과정을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치를 평가받는다.

완전성

해발 800~1,300m에 해당하는 한라산의 하부 경계는 법적 보호지역 경계를 따른다. 유산 및 완충구역은 화산의 정상 및 상부 경사면과 지역 생물군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포함하여 넓은 국유지(제주도의 8%)를 포함한다. 제주의 다른 중요한 용암 동굴 시스템과 화산 지형을 포함하여 유산구역을 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보존 및 관리체계

등재된 유산의 모든 구역에 대한 엄격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주요 법령은 문화재보호법이다. 이 법률에 따라 유산 내의 핵심 구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제주 기념물인 동굴 1개 제외)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 완충구역은 핵심 구역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일부 매우 제한된 개발을 허용한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1970년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도 차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와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유산은 2006-2010년에 수립한 관리 계획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다. 주요 관리 문제에는 지하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농업 영향을 피하고 유산 방문객 수를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9. 조선왕릉(2009)

요약

조선왕릉(朝鮮王陵)은 18개 지역에 흩어져 있고 총 40기에 달한다. 1408년부터 1966년까지 5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왕릉은 선조와 그 업적을 기리고 존경을 표하며, 왕실의 권위를 다지는 한편 선조의 넋을 사기(邪氣)로부터 보호하고 능묘의 훼손을 막는 역할을 했다. 왕릉은 뛰어난 자연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보통 남쪽에 물이 있고 뒤로는 언덕에 의해 보호되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터이며, 멀리 산들로 둘러싸인 이상적인 자리를 선택해 마련되었다. 왕릉에는 매장 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례를 위한 장소와 출입문도 있다. 봉분뿐만 아니라 T자형의 목조 제실, 비각, 왕실 주방, 수호군(守護軍)의 집, 홍살문, 무덤지기인 보인(保人)의 집을 포함한 필수적인 부속 건물이 있다. 왕릉 주변은 다양한 인물과 동물을 조각한 석물로 장식되어 있다. 조선왕릉은 5,000년에 걸친 한반도 왕실 무덤 건축의 완성이다.

등재기준

- 기준 (iii) : 유교 문화의 맥락에서, 조선왕릉은 자연 및 우주와의 통일이라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장례 전통에 입각해 있다.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제례를 위한 기억에 남을 만한 경건한 장소가 창조되었다.
- 기준 (iv) : 조선왕릉은 건축의 조화로운 총체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한국과 동아시아 무덤 발전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 준다. 왕릉은 특별한 (또한 규범화된) 건축물, 구조물 요소들의 배치를 보여 준다. 그리고 몇 세기에 걸친 전통을 표현하는 동시에 보강한다. 또한 미리 정해진 일련의 예식을 통한 제례의 생생한 실천을 보여 준다.
- 기준 (vi) : 조선왕릉은 규범화된 의식을 통한 제례의 살아 있는 전통과 직접 관련된다. 조선 시대에 국가의 제사는 정기적으로 행해졌으며, 지난 세기의 정치적 혼란기를 제외하고 오늘날까지 왕실 및 제례 단체에 의해 매년 행해져 왔다.

완전성

연속유산으로서 조선왕릉 유적은 왕릉의 환경, 배치, 구성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완충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유적 중 일부에서는 몇몇 예외적 개별 유적을 볼 수 있다. 도시 개발이 몇몇 유적의 경관에 영향을 미쳤지만(선릉, 헌릉, 의릉) 대체로 특정한 능묘의 정상부에서만 도시 건물을 볼 수 있다. 현재, 엄격한 법률로 완충지역 안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수리, 복원, 중건되었다. 봉분이 있는 매장지는 법적 규제를 덜 받았으나, 입구와 의례 공간은 목재로 지어진 탓에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진정성

모든 유적이 본래의 기능과 경건함을 잘 유지해 왔으며, 특히 도시화가 덜 진행된 곳의 유적은 더욱 그렇다. 몇 개의 입구들만 바뀌었을 뿐 그 형태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조선왕릉은 전체적으로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보존 및 관리체계

문화재보호법 등 실정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호된다.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의해 효율적인 보존 계획을 세우고 유산을 관리한다. 개별 유산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지니고 있다.

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요약

14세기~15세기에 조성된 하회(河回)마을과 양동(良洞)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씨족 마을이다. 숲이 우거진 산을 뒤로 하고, 강과 탁 트인 농경지를 바라보는 마을의 입지와 배치는 조선 시대(1392~1919) 초기의 유교적 양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옛 마을은 주변 경관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자양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에는 종가와 양반들의 기거했던 목조 가옥, 정자와 정사, 서원과 사당, 옛 평민들이 살던 흙집과 초가집 등이 있다. 17세기~18세기의 시인들은 정자와 쉼터에서 마을을 둘러싼 강과 산과 나무의 경치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시를 지어 노래했다.

등재기준

- 기준 (iii) :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대표적인 씨족 마을의 예로서, 조선 시대 초기의 특징인 촌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을의 입지와 배치와 가옥의 전통에서 두 마을은 500여 년 동안 엄격한 유교의 이상을 따라 촌락이 형성되었던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 기준 (iv) : 하회와 양동 두 마을은 한반도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조선왕조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양반과 평민 가옥들의 전체적인 배치와 개별적 배치의 조화는 조선왕조의 힘과 영향력이 문학과 철학적 전통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적 전통에도 배어 있음을 의미한다.

완전성

씨족 마을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인 양반의 가옥과 평민의 가옥, 공간 배치의 형식, 서당과 서원 등이 유산으로 등재된 이 두 마을에 있다. 하회마을에는 동쪽 4km 지점에 병산서원(屏山書院)이 있고, 양동마을에는 옥산서원(玉山書院)과 동강서원(東江書院)이 마을에서 각각 8km, 4km 떨어진 곳에 있다.

문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과 숲, 산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경관은 하회마을에서 주로 볼 수 있고, 양동마을에서는 그 완전성이 약간 떨어진다. 양동마을에 흐르는 안락천 개울과 수운정(睡雲亭)에서 바라보이는 안강평야와 산등성이는 등재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유산은 최소한의 부작용 외에는 개발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으며, 방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양동마을의 환경은 다리와 도로, 철도 등의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로 일부 훼손된 바 있다.

진정성

씨족 마을의 요소들이 보여 주는 보편적 가치는 가옥과 마을 배치의 우수성과 관련되어 있고, 주변 환경과 씨족 마을의 의식은 유교 전통에 의해 형성된 조선 시대 정치 체제와 문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이 마을들이 위계에 의해 형성된 촌락의 배치와 영향력 있는 씨족과 학자들의 표상을 잘 보여 주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복원할 때 쓴 재료로 인해 유산의 진정성이 약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회마을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새롭게 이용하기 위해 재료를 바꾸었는데, 이러한 변경은 때때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조선 시대의 재료와 기술, 배치, 건축물의 우수성을 흐리게 한다.

보존 및 관리체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1984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하회마을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는 완충구역을 포함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더 넓게 확장하기도 한다. 양동마을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는 동강서원을 제외한 외곽지역과 완충구역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독락당의 경우는 제외). 숲은 마을의 건물과 집처럼 문화재 보호법의 틀에 의해 보존된다. 마을 내에서는 하회 6채(124채 중)와 양동 2채(149채 중)가 각각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국가 차원에서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그리고 동강서원을 제외한 모든 관련 장소에 대한 보호와 8채의 가옥에 대한 개별 보호가 있다.

이러한 국가적 보호는 다음과 같은 국가 지침에 의해 강화되었다: 문화재 정책의 중장기 비전인 「문화재 2011(2007)」;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2004)」; 「하회 양동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2007)」.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유산의 정의부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보존 규정이 있다. 동강서원은 도 단위로 보호되고 있다. 하회마을에는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2004)』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회마을정비기본계획(2002)」, 「2016 안동도 시기본계획(1998-2016)」, 「하회관광지 조성계획(2003)」도 있다. 양동마을에는 「양동마을 정비 기본계획(2002)」이 있다; 「2006-2020 경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2006)」, 「2005-2034 경주시 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04)」. 마을 내에서는 하회 6채(124채 중)와 양동 2채(149채 중)가 각각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유산 및 완충구역의 전체 지역과 주변 환경은 통제 지역, 농업 및 산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호 지역과 같은 일련의 정부 통제 하에 있다.

개별 건축물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에 대한 복원 기법 및 재료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준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관의 시각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숲 지역, 나무, 강 가장자리 및 전체 시각적 경관을 포함하도록 적극적인 보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방문객이 마을에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문화 관광 전략이 건물 수용도와 주민들의 관용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수준의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화재 대응을 보장하는 것이다.

11. 남한산성(2014)

요약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산지에 축성된 남한산성(南漢山城)은 조선시대(1392~1910)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의 초기 유적에는 7세기의 것들도 있지만 이후 수차례 축성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17세기 초, 중국 만주족이 건설한 청(淸)나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여러 차례 개축되었다. 남한산성은 승군(僧軍)이 동원되어 축성되었으며 이들이 산성을 지켰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전해 온 성제(城制)의 영향과 서구의 화기(火器) 도입에 따라 변화된 축성 기술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당시의 방어적 군사 공학 개념의 총체를 구현한 성채이다. 오랜 세월 동안 지방의 도성이었으면서 아직도 대를 이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남한산성의 성곽 안쪽에는 당시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군사·민간·종교 시설 건축물의 증거가 남아 있다. 남한산성은 한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등재기준

- 기준 (ii): 남한산성의 산성 체계는 17세기에 극동지역에서 발달한 방어적 군사 공학 기술의 총체를 구현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한국의 성제를 재검토한 결과이자 서구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화기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한국의 산성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으며 축성된 이후에는 한국의 산성 건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기준 (iv): 남한산성은 요새화된 도시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17세기 조선시대에 비상시 임시 수도의 기능을 하도록 계획·건설된 남한산성은 이전부터 존경받아온 전통인 승군에 의해 축성되었으며 산성의 방어 역시 승군이 담당하였다.

완전성

남한산성의 중요성·다양성 그리고 범위는 문화유산 구성의 완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남한산성은 분명하게 정의된 역사적 역할과 함께 산성의 구조, 옛 산성의 기능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화유산의 특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와 지식, 즉 남한산성이라는 산성이 지닌 방어적 군사 공학이라는 개념의 도출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역사와 지식은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민속적·네오애니미즘(neo-animism, 심령주의)적 성격을 띤 오늘날의 여러 활동이나 지방 분권적 성격의 활동은 유산의 완전성이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진정성

유산을 구성하는 유형적 요소인 산성을 보수 및 개축할 때에는 산성의 형태·구조·자재 등에 있어 특별히 정밀한 과학적 지침을 따랐다. 이러한 활동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새롭게 재축(再築)되고 있다. 이러한 재축 과정은 역사적으로 전해져오는 남한산성의 건축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유산의 요소 중에서 특히 목재를 주로 하여 건축된 사찰이나 건축물 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보호는 이미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과학적으로 인정된 진정성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나치게 체계적으로 계획된 복원 정책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 덕분에 오래 전에 소실되었던 건축물들을 재축할 수 있었는데, 특히 19세기 일제강점기 당시 전소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옛 터에는 당시의 모습을 지닌 행궁(行宮)을 복원할 수 있었다.

보존 및 관리체계

남한산성 성곽 및 기념물을 포괄하는 전체 권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늘날 총 218점에 달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 요소 각각은 유적 및 사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지방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보호되고 있다. 문화적 양상불에 대한 기술 및 관광 관리는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Namhansanseong Culture and Tourism Initiatives, NCTI)에서 총괄하고 있다. 문화재 자체와 완충지역은 경기도 도립공원(NPPO)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도립공원 측은 식생·녹지·기반시설(산책로·공원 지역 등) 등을 관리·관할한다.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 그리고 해당 지방 및 시도 지자체에서는 유산 및 완충지역의 보호·보존·관광 관리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시민 자원 봉사 단체가 유산의 관리 및 증진에 참여하고 있다. 관리계획에는 부문별 계획, 특히 본 유산의 보존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2.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요약

대한민국 중서부 산지에 위치한 백제의 옛 수도였던 3개 도시에 남아 있는 유적은 이웃한 지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한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어 660년에 멸망할 때까지 700년 동안 존속했던 고대 왕국으로, 한반도에서 형성된 초기 삼국 중 하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3개 지역에 분포된 8개 고고학 유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공주 웅진성(熊津城)과 연관된 공산성(公山城)과 송산리 고분군(宋山里 古墳群), 부여 사비성(泗沘城)과 관련된 관북리 유적(官北里遺蹟, 관북리 왕궁지) 및 부소산성(扶蘇山城), 정림사지(定林寺址), 능산리 고분군(陵山里古墳群), 부여 나성(扶餘羅城), 그리고 끝으로 사비시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익산시 지역의 왕궁리 유적(王宮里 遺蹟), 미륵사지(彌勒寺址) 등으로, 이들 유적은 475년~660년 사이의 백제 왕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은 중국의 도시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 종교를 수용하여 백제화(百濟化)한 증거를 보여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룩한 세련된 백제의 문화를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등재기준

- 기준 (ii)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에 있었던 상호교류를 통해 이룩된 백제의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 기준 (iii) :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 건축학적 특징과 석탑 등은 백제 왕국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완전성

유산은 전체적으로 유산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 구성 유산들은 백제의 수도가 지녔던 역사적 기능을 입증하며, 유산과 해당 유산의 배경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부소산성 북문 인근에 있는 양수장(揚水場)과 관북리 유적지 내에 남아있는 일부 주거 시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유적은 개발이나 방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진정성

연속 유산이 분포된 8개의 유적지는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구와 복원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개입에 영향을 받아왔다. 적용된 자재와 기법은 대체적으로 전통을 따랐다. 고분과 사찰은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절터의 경우에는 크지 않은 규모의 도시 개발 지역 한 가운데에 있어서 마치 고립된 섬과 같은 형상이지만 산성과 고분의 경우 산림 경관 내에 숲으로 둘러싸인 원래의 입지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보존 및 관리체계

유산을 구성하는 모든 유적은 2012년에 개정된 1962년 문화재보호법, 2013년에 개정된 2004년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충청남도(2002년)와 전라북도(1999년)의 문화유산보호조례에 의거하여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유산을 구성하는 유적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완충 지역에는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도 8m 이상의 건물 신축을 금지하고 있다.

이 유산은 3개의 각 지역별 주민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지역사회 단체의 의견뿐 아니라 중앙 및 지방과 지역 자치단체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있는 3개의 지역별 주민협의회는 보존 및 관리, 이용과 홍보를 책임지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3개 도시의 유적을 관할하는 기관들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2015~2019년 보존 및 관리 계획’이 이미 입안되었다. 이 계획은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 유산에 관한 전체적인 관광 관리 전략뿐만 아니라 각 구성 유적에 대한 탐방객 관리 계획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 수정되는 중이다.

13.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요약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하 ‘산사’)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형과 무형의 문화적 전통을 지속하고 있는 살아있는 불교 유산이다. ‘산사’를 구성하는 7개 사찰은 모두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종교 활동, 의례, 강학,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다양한 토착 신앙을 포용하고 있다. ‘산사’의 승가공동체는 선수행의 전통을 신앙적으로 계승하여 동안거와 하안거를 수행하고 승가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울력을 수행의 한 부분으로 여겨 오늘날까지도 차밭과 채소밭을 경영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7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대승불교의 다양한 종파를 수용하여 수많은 불교 사찰들이 창건되었는데, 도시에 세워진 사찰들과 산지에 세워진 사찰들로 나누어진다. 이후 조선(1392~1910)의 송유역불 정책으로 인해 도시 사찰의 대부분은 강제로 폐사되었지만, ‘산사’를 포함한 산지사찰들은 현재까지 승려들의 신앙과 정신 수행, 일상생활을 위한 승원으로서 본래의 기능과 특징을 지속하여 왔다. 즉, 도시 사찰은 거의 사라진 반면 산지사찰인 산사들은 오히려 신자들의 신앙처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수행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산사’를 구성하는 7개 사찰은 종합적인 불교 승원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또한 산기슭에 계류를 끼고 입지하여 주변 자연을 경계로 삼는 개방형 구조를 나타낸다. 최소 규모로 축대를 쌓아 자연 지세에 순응함으로써 사찰의 건물 배치는 비대칭적이고 비정형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연 순응적으로 사찰의 영역 확대가 이루어져 곡저형, 경사형, 계류형이 대표적인 사찰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등재기준

· 기준 (iii) :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오늘날까지 불교 출가자와 신자의 수행과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승원이다. 불교의 종교적 가치가 구현된 공간구성의 진정성을 보존하며 지속적으로 승가공동체의 종교 활동이 이어져 온 성역으로서 특출한 증거이다.

완전성

7개의 사찰은 산세, 종교 활동, 의례, 강학 등 한국 불교 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성 요소를 위협하는 압력은 거의 없으며 구성 요소는 손상되지 않고 역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진정성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용도와 기능, 입지와 환경, 전통 기술 관리체계 측면에서 높은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용도와 기능면에서 산사는 복합적인 가람구조 속에서 승려와 일반인들의 신앙, 수행, 생활이 단절 없이 지속되어 왔고 살아있는 종합승원으로서의 기능을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어 높은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입지와 환경면에서 신청유산은 산과 계류 등의 자연을 경계로 삼고 주불전의 원지형을 창건 이래 훼손없이 온전하게 진정성을 보존하여 왔으며, 사찰의 확장 과정에서 자연지형에 순응한 결과 경사형과 곡저형, 계류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전통 기술 관리체계 측면에서 유산의 주요 구성요소인 석조시설물과 목조 건축물은 진정성을 증거한다. 석탑, 석등, 승탑 등의 석조유산은 초창 시기 경내 공간을 확인해 준다. 목조건축물들은 내구성의 한계로 인해 중건과 중수, 보수 등이 있었으나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중수원칙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보존 관리되어 왔다.

또한 이 유산은 각 사원마다 특유의 불교의례를 거행하여 높은 진정성을 갖는다. 날마다 거행하는 일일 예불과 연중 기념일에 거행하는 연중의례 외에 사찰 별로 특징적인 특별의례를 거행한다. 안거의 마지막 기간에는 신도들도 참여하여 며칠 동안 밤새워 수행하는 옹맹정진을 시행한다. 각 산사에서 대규모 신도들이 참여하는 야외 의식은 마당에서 이루어지며 마당에 있는 대규모 의식을 위해 걸었던 탕화를 받치는 괘불대의 존재에서 역사적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존 및 관리체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일곱 개의 사찰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찰과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구성요소들은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호·관리되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문화재청의 지도 아래 문화재보호법과 조례들을 기반으로 종교기관과 주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의 다양한 노력에 의해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신청유산 주변의 개발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각 사찰이 산지에 입지해 있어 외부인에 의해 위협을 야기하거나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 잠재적 위험은 매우 적다. 신청유산은 현재까지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화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목조건축물이 많은 산사의 특성상 산불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사에는 화재감지설비와 CCTV,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의 소방서와도 긴밀한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관리원에 의해 24시간 상시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압력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로 인해 예상되는 관광압력에 대해서는 7개 사찰 모두 충분한 수용 능력이 있으며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보존 및 관리의 종합적인 요구를 충족한다.

14. 한국의 서원(2019)

요약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시설의 한 유형으로,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까지 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 유산은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성리학에 기반한 한국 사회 문화 전통의 특출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서원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낸다.

등재기준

· 기준 (iii) : 이 유산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역사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나타낸다.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완전성

유산은 한국의 성리학의 발전과 서원 유형의 정립과정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원 9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요소는 집합적으로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며, 각각 하나의 온전한 서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유산은 조선시대 서원의 필수 공간 요소인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을 구성하는 각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래의 지형, 주변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향공간을 구성하는 사우와 사우 내부의 위패, 전사청 등이 온전하게 존재하며,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강당과 재사, 도서관, 각 건물의 편액 등이 온전하다. 누각 등 회합 및 유식공간의 구성요소 역시 온전하며, 주변의 경관, 지형 등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서원 주변의 경관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중요한 부분은 모두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진정성

유산은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입지와 주변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서원 설립운동의 초기에 해당하는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기간 동안 건립된 대표적 서원으로서, 역사발전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였다. 제향자의 연고 및 경관을 포함하는 입지 환경,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의 건축 배치, 각 건물의 유형적 형태, 목재와 기와를 사용하는 물질 구성, 보존 관리의 체계 등을 원래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다.

형태와 디자인 측면에서 신청유산은 서원 역사의 건축적 구현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의 유기적 결합을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로 완성하였고, 이를 지금까지 변형 없이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목조 건축기법과 좌식형 생활 관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건축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측면에서, 신청유산은 서원 설립 당시의 건축적 결과물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조선시대 건축기법과 자재로 최소한의 보수를 해오고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기법으로 영건하였던 원형을 따라 현재는 공인된 기술인력과 훈련받은 장인들에 의해 최소한의 보수를 행한다. 유산은 문화재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며, 전승되어오는 전통 기술을 적용한다. 목조건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흰개미, 부식, 화재 등에 대해 공인된 전문집단의 관리를 받고, 예방조치를 한다.

유산은 기록유산, 무형유산에 속하는 것들도 잘 보존, 전승하고 있다. 서원을 거쳐간 인물들이 남긴 전적, 문집, 기문, 목판 등은 잘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제향은 지금까지 창건 당시의 모습 그대로 계승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록유산과 무형유산 모두 개별 유산들이 지속된 전통을 보여준다.

보존 및 관리체계

한국의 서원은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온전히 포함하고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계가 설정되었다. 또한 서원의 보호·관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미 국가 사적으로 각각 지정되어 해당 서원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도 보호·관리되고 있다.

이 유산은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이라는 기능과 유기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서원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각각의 기능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유산구역에 포함되었고, 서원의 입지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산림, 농경지, 강, 계곡 등이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 유산을 위협하는 개발 및 환경압력 등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인은 경미하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산 대부분이 목재 건축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설비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과 관광 산업에 의한 서원의 보호·관리에 대한 영향은 향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원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5. 한국의 갯벌(2021)

요약

한국의 갯벌은 한반도의 서남해안이자 황해의 동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 요소로 구성된 연속 자연유산이다.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놓여있는 황해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로(EAAF)의 중심에서 수백만 마리의 이동성 물새를 부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생산적인 갯벌 생태계 가운데 중 하나이자 인간들에게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4개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로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협종 물새의 개체수를 부양하고 있으며,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KBA), 중요 조류 지역(IBA), 생물권보전지역, 랍사르 등록습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로 파트너십 네트워크 지역으로의 지정기준에 명백하게 부합되며, 따라서, 이 유산은 국경을 넘어 공유된 자연 유산에 대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례이다.

한반도 서남해안의 많은 지역주민들은 토착지식에 기초하여 해양 자원 양식에 의존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인간의 활동은 연안 습지 일부를 변형시켰지만 2019년 제정된 갯벌법의 법적 틀 구조에 따른 행동 계획은 부분적으로 훼손된 갯벌 생태계의 복원을 긍정적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IUCN 산하의 국제적 협력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로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진행되고 있기에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를 포함하여 이 유산은 황해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로에 내재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등재기준

· 기준 (x) : 매년 약 5천만 마리의 물새가 EAAF(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이용하며 이 중 대부분이 황해의 갯벌에 의존하여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 이르는 동아시아 지역의 번식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오스트랄라시아에 이르는 월동지까지 이동한다. EAAF는 22개 국가를 아우르는 이동경로로 세계의 8대 철새 이동경로 중 가장 많은 새들이 이용하는 경로이며, 가장 많은 멸종위기의 이동성 물새와 가장 다양한 종류의 철새들을 보유하고 있다.

황해를 이동 기착지나 월동지로 이용하는 철새들 중 사실상 대부분이 이 유산을 이용하며 이 지역의 이동성 물새 밀집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이자 EAAF 고유종인 8종 등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34종 - 넓적부리도요(CE,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 상태의 철새 종), 알락꼬리마도요(EN), 저어새(EN), 붉은어깨도요(EN), 청다리도요사촌(EN), 흑두루미(VU), 검은머리갈매기(VU), 노랑부리백로(VU) - 이 포함된다.

이 유산은 저서돌말류 375종, 해조류 152종, 대형저서생물 857종을 포함하여 총 2,169종의 무척추 동물을 부양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나타낸다. 해양 무척추동물로는 진화론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범게 등 멸종위기의 동물 5종과 서식 범위가 제한적인 47종의 동물들을 부양하고 있다.

완전성

이 유산은 한반도 서남해안에 남아 있는 가장 넓은 갯벌 지역이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로 (EAAF)의 중요 중간기착지로 이동성 물새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연속유산의 4개 구성요소 지역들은 국제적 위협 물새종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 서식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대표적인 지역이다.

연속유산인 4개의 구성요소 지역의 경계는 철새와 갯벌생물의 섭식지, 번식지 및 휴식지를 모두 포괄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한국의 갯벌」은 수많은 섬들 주변에 넓게 발달된 펄, 모래, 혼합갯벌과 암반서식지 등 다양한 서식지를 포괄하며, 금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육상기원 퇴적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서식지의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로 상의 위협종을 포함한 물새종과 갯벌 위와 내부에서 서식하는 다른 종들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부양한다.

보존 및 관리체계

대한민국은 해양 완충구역을 포함한 유산지역의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연속유산의 4개 구성 요소는 습지 보호법(WCA)에 따라 습지 보호 구역(WPA)으로 법적으로 보호된다. 그 밖에 유산 및 완충구역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어 사실상 훼손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2019년 갯벌법(그리고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2019-2023년 관련 실행 계획)은 갯벌의 추가 매립을 중단하고 해안 매립에서 갯벌 보호 및 복원으로 국가 해안 관리 정책의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유산 내외부의 해안 관리를 더욱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과거 개발로 훼손된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 복원 작업을 감독하고 있다.

전통적인 어업 활동은 현재 수준으로 계속할 수 있으며 어업법 및 습지 보전법에 따라 어업협동조합의 자율적인 규칙을 따른다. 건강한 갯벌이 많은 지역 생계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고유한 이익과 전통적인 관리는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광업은 유산과 완충구역의 일부 지역(특히 순천시 주변)에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더 외딴 지역(많은 작은 섬들)은 관광업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이 유산은 관련된 모든 기관의 인력을 포함하여 적절한 재정 및 기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재가 되면 더 증가할 것이다. 유산을 구성하는 WPA의 효과적인 관리와 집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 비정부 조직 및 지역 사회에 의해 진행 중인 많은 활동이 있다. 또한 위험(예: 자연 재해 및 인위적 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 감소 및 대응하기 위한 많은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통합 관리 계획은 OUV를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정 관리 개입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추가 지역으로 제안된 2단계를 완료함에 따라 당사국이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참고문헌

ICOMOS. (2008).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ICOMOS. (2008). 『The World Heritage List: What is OUV? Defin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Pari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UNESCO. (2021).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ICCROM·ICOMOS·IUCN 저 문화재청 역. (2018 [2011]).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UNESCO·ICCROM·ICOMOS·IUCN. (2022), 『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2). 『세계유산 설명 방법론 기초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2).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와 개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2). 『2022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실무교육 자료집』.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3). 『2023년 제1회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실무교육 자료집』.

세계유산 남한산성 등재신청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whc.unesco.org/en/lis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eritage.unesco.or.kr)

● 교육 일정표

시 간	세부일정 내용	강사
1일차 <2023. 7. 6.(목)>		
10:00~10:20('20)	교육 등록 및 준비	
10:20~10:30('10)	개회사 및 오리엔테이션	
10:30~11:00('30)	(강의)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 세계유산협약 개요	이예나 과장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
11:00~11:20('20)	질의응답	
11:30~12:00('30)	(강의) 유산 가치 : 가치와 속성 중심 유산 해석 방법론	이수정 실장 (유네스코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12:00~12:20('20)	질의응답	
12:20~13:30('80)	중식	
13:30~14:00('30)	(강의) 한국의 서원 해석·설명 실무 : 연속유산 속성 기반 보존관리·활용 사례 공유	박진재 실장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14:00~14:20('20)	질의응답	
14:30~15:00('30)	(강의) 남한산성 해석·설명 실무 : 등재신청서 작성법 및 향후 보존관리·활용방안 제안	노현균 팀장 (경기문화재연구원)
15:00~15:20('20)	질의응답	
15:30~17:30('120)	(실습) 세계유산 해석·설명하기 : 남한산성 속성 추출 및 속성 기반 세계유산 홍보방안 마련	오혜인 전문관 (유네스코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17:30	교육 종료	
2일차 <2023. 7. 7.(금)>		
09:10~10:00	교육장 → 남한산성 이동	
10:00~12:00	(실습) 남한산성 현장답사	노현균 팀장 (경기문화재연구원)
12:00~13:00	중식	
13:10~14:00	남한산성 → 교육장 이동 / 교육종료	



unesco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whipic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3층 (30150)

Tel. +82 44 251 1031
Fax. +82 44 868 1343
Email. whipic@unesco-whipic.org

발행인 채수희
편집총괄 이재순
편집 및 교정 심혜리
오혜인
디자인 그래픽코리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한 유산의 이해 증진과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입니다.

센터는 연구, 역량강화, 정보화,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고 이를 일반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문화간 화해를 도모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he logo for whipic, featuring the word "whipic" in a lowercase, sans-serif font. The letter "i" is stylized with a circular graphic element consisting of several concentric arcs, resembling a globe or a signal.